

과속삼대 過速三代

제 공 디씨지 플러스

제작 토일렛 피쳐스

각본/감독 강형철

1. Prologue 현수의 집 – 오전 [Title Back 1]

[암 전]

고요한 아침 시간 실내 가정집의 룸 톤, 째깍째깍…… 초침 소리만 들려온다.
밝아지면 뜬금없이 화면을 가득 메우는 시계. 8시에 몇 초 모자란 초침.
그리고 계속해서 각자의 초침 소리를 내며 8시를 향해 달려가는 몇 개의 시계들.
이게 무슨 영화인지 감이 안 잡힌다.
뱅 앤 울롭스 오디오의 시계가 마침내 ‘8:00’를 가리키고, 동시에 자동으로 켜지는 오디오.
6장의 CD 중 한 장 골라지고, 돌아가며 훌러나오는 음악. ‘tom jones – It's not unusual’
집안 가득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타이틀.
로봇 청소기도 알람에 작동하며 기분 좋게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자동으로 열려지는 오토 블라인드와 통 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밝은 햇살.
물결치는 햇살에 따라 생기는 main title.

- 과 속 삼 대 -

현수의 침실. 침대에서 상쾌하게 기지개 켜는 현수(38)의 발.
움직이는 그의 동선에 따라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나 나올 법하게 꾸며진 그의 집이 소개된다.
다이어트 식단이 붙은 냉장고를 열면 칼 같이 일렬로 서 있는 각종 웰빙 식이 보이고,
대형 벽걸이 TV에서 나오는 요가를 따라 하는 현수의 모습.
훤칠하고 잘 빠진 그의 몸이 돋보인다.
뭔지 모를 복잡한 목욕 용품으로 샤워를 하고, 깔끔한 주방에선 에스프레소 머신이 수증기를 뿐고,
기분 좋게 음악에 박자까지 맞추는 현수.
그의 동선에 따라 절묘하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타이틀들.
드레스 룸을 가득 메운 그의 슈트 컬렉션. 모두 칼 같이 정돈되어 있다.
패션 잡지를 참조하며 코디를 하는 현수. 거울에 비치는 그의 모습.
잡지 모델과 똑같은 패션. 그러나 그 이상으로 멋진다.
가장 자신 있는 표정 한 번 지어보고 박수를 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겨울의 전등.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멋진 싱글 남 현수.

2. 라디오 방송국 복도 – 오전 [Title Back 2]

B.G.M 이어지고,
위의 동선으로 장면전환 되면 방송국 복도를 걸으며 기분 좋게 사람들과 인사하는 현수.
그의 잘 빠진 몸이며 패션 감각에 대해 한 마디씩 하는 이들, 힐끗 거리는 여자들.
주로 인사를 받는 모습으로 보아 그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행동 하나, 걸음걸이마다 자신감이 넘치는 현수.

3. 라디오 부스 – 오후

[INSERT – ‘ON AIR’]

위의 음악 페이드 되며 컨트롤 박스에서 ‘Q’ 사인을 하는 PD.
위 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경쾌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의 현수.

현수 남현수의 정오의 휴식. 계속해서 사연 소개 이어집니다.

사연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음악을 틀며 능수능란한 진행을 보여주는 현수.

현수 (다정한 음악) 경기도 분당에서 김정아씨. 며칠 전 남자 친구가 제대했습니다.
제대하면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Jump Cut]

현수 (슬픈 음악) 제대하면 헤어지자는 남자 분들 많죠.
(휴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남자는 책임감인데.

[Jump Cut]

현수 (정겨운 음악) 얘기가 걸음마를 시작했다니.....
이야~ 저도 얘기 정말 예뻐하는데...

부스 밖에서 슬쩍 쳐다보는 PD의 시선.

[Jump Cut]

현수 네! 김중동씨.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사연은..... (호흡 바꾸며) 여러분 기다리시던 황정남씨 사연.

하이라이트 사연인 듯 사뭇 진지한 음악을 선곡한 현수.
부스 밖의 PD, 스텝들도 진지하다.

현수 이곳에 사연을 보낸 지도 벌써 삼 개월.....
여섯 살 아이를 가진 스물 세 살의 미혼모 얘기.
더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개해 주시고 청취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에 드디어....(격양) 저도 아빠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스 밖, PD와 스텝들도 반가운 반응이다.
더욱 사연 읽기에 몰입하는 현수.

현수 이 사연이 소개되는 날, 저는 아버지를 만나겠군요.
저란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사셨던 당신 앞에 제가 나타났을 때 어떠실까요?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반갑게 맞아 주실까요?
멀리네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그동안 꾸준히 사연 소개해 주신,
DJ 남현수씨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날 분도 DJ 남 현수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를 만나면 꼭 사연 보낼게요. 좋은 사연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물네 번째 편지를 보내는 황정남이.....

[Cut To - 고속버스 터미널]

현수의 목소리는 화면 위로 흐르고 보여 지는 한 여자와 아이의 실루엣.
짐작컨대 사연의 주인공인 정남과 그의 아들인 듯하다.
커다란 짐 보따리 하나씩 짊어지고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을 헤쳐 나오는 모습.
거대 도시의 이미지와 갓 상경한 듯 연약한 이들의 이미지가 웬지 조화롭지 않다.
점프 컷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이들의 모습.
사연 속 아빠를 찾아 가는 듯...

[Cut To - 라디오 부스]

현수 (호흡 바꾸며) 세상에 가족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격양) 정남씨 아버님. 혹시라도 따님, 손자 나 몰라라 한다 던지....
(부탁하듯) 같은 남자로서... 정말 그러시지 마세요.
네? 부탁입니다. 딸에다 손자까지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혼자 사는 아버지를 만나면 따뜻한 세끼 식사를 책임지겠다는 마음 따뜻한 딸.
저 같으면 두 손 벌려 맞아주겠습니다.

흘러나오는 음악.
너무나 감상에 젖어 멘트를 마무리 하는 현수.
스스로 감동을 받은 것일까? 마이크를 끄고 머리를 감싸고 있다.
주목하는 부스 밖 PD와 스텝들. 갑자기 고개를 드는 현수.

현수 우와~ 가랜다고 갔다!!!

호들갑스럽게 컨트롤 룸으로 나가는 현수. 좀 전의 자상함과 진지함은 온데간데없다.
알아서 커피며 스낵을 챙겨주는 스텝들.

현수 지금.. 이야~. 진짜 얘 아빠 이제 어떡하니? 확 그냥 쥐약 먹겠지? 응?
PD (피식) 선배도 조심해요. 어디서 크고 있을지도 몰라.
현수 (심장 마비 오는 듯) 어~ 염통!... 난 뛰어 내리지.

에이~ 하며 웃는 스텝들, 정색하는 현수.

현수 아니~ 웃는게 아니라. 혼자도 아니고 손자까지 달고 오면?
(맞다) 그 애새 몽유병 있다잖냐? 응?
밤마다 (흉내) 이러고 돌아다니고..... (생각나는 듯 소름) 어우~씨.
우리가 얘 아빠 죽인거야. 이 살인자들아. (지적하며) 살인자 1. 살인자 2.
AD 30초 전이요.

부드럽고 자상하던 좀 전과는 너무나 상반된 현수의 모습.
부스 안으로 들어가는 현수. 헤드폰을 쓴다.

PD (이야~) 오늘 뭐 또 찍으신다면서요?
현수 (거만) 찍지~.
PD 이야~. 어떻게? 조만간 회식 한 번 추진할까요? 요 앞에 안창살 쓸깃하다던데?
현수 (괴식) 대출이 3억이여.

장단 맞춰 웃는 PD.
그러나 대본을 점검하는 현수의 눈치를 보며 표정으로 뒷담화를 날린다.
다시 표정 관리하며 'Q'사인을 날리는 PD.

4. 광고 촬영장 – 저녁

위 씬 PD의 사인을 받으며 장면 전환.
귀여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광고 촬영을 하고 있는 현수.
입가에 과한 미소 가득 품고 '컷' 사인을 기다리는, 마치 정지 화면 같은 모습의 현수와 아이들.
감독의 '컷' & '오케이' 사인 나자마자 표정 바뀌며 벌떡 일어나는 현수.
무릎에 앉고 있던 아이들은 자동으로 내팽겨진다.
애들 정말 싫어하는 듯 손까지 슬슬 닦으며 모니터 뒤의 감독에게 다가간다.

현수 잘 나왔어?
감독 요새 좀 찍으시더니 모델 다 됐네.
현수 3년 쉬었으면 바짝 땡겨야지. (모니터 보며) 저 컷은 좀 살쪄 보인다. 빼자.

이 때 아역들과 엄마들 지나가며 어색한 인사를 오가고,
아이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지만 가슴 큰 엄마는 힐끗거려주는 그의 캐릭터.

현수 (슬쩍 치며) 야. 저런 콧물들이랑 말고 응? 좀 있잖아? 그런 거?
감독 그런 거 뭐요?
현수 아~ 다리 좀 놔보라고. 맨~ 애새들 학습지 팔아서 언제....
뭐 금융. 통신. 이런 거 찍으면 사람 확 행복해진다며?
감독 (시큰둥) 일개 감독 놈이 무슨 힘이 있나?
현수 (맞다!) 박정민이! 그 비디오 터진 거 어떻게 됐니?

감독 정민이 잠적, 회사에서 광고주한테 위약금 끌고, 전속 잘리고.

(쯧쯧..) 지금 한창 끗발 날릴 땐데...운빨도....

현수 한치 앞도 못 보는게 사람이야.

(살짝 반가운) 그럼 T.O 난거네. 개 전속 하던 거? 응?

감독 봉필주 기자. 그 인간 아주 제대로 까발렸더만.

현수 개 원래 그게 전문이야. 하이에나 같은 시끼. (재촉) T.O 난거지?

감독 났겠죠. 아까 봉 보이던데? (힐끗) 하이에나 오네. 저기.

현수의 뒤에서 시시덕거리며 다가오는 한 남자. 봉필주 기자다.

봉 기자가 거의 다가올 무렵 흑 돌아서며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반기는 현수.

현수 (웃음) 아~. 봉 기자가 어쩐 일로?

봉 기자 (웃음) 아~. 저기 옆 세트에 냄새가 나서.

요새 방송 재밌더만. 아빠 찾았네요?

현수 응?

봉 기자 그 사연. (현수 ?) 미혼모.

현수 아~. 어 뭐 찾아갔겠지. 갔을 거야. (슬쩍) 특종 하셨더만?

봉 기자 기자라 진실을 추구는 하는데... 참~ 나도 정민이한테 마음이 좀 그래.

현수 개는 어떻게 하고 다니 길래 비디오나 남기고 참....

봉 기자 형님도 요새 좋을 때 조심하셔야 돼. (힐끔 웃으며) 진짜 개 만나요?

현수 누구?

봉 기자 그 리포터. 케이블.

현수 내가 뭘. 야! 내가 리포터는? 격 떨어지게.

아~난 그런 거 없어. 막아.

쓸데없이 웃는 두 사람.

현수의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다.

5. 어느 와인바 – 밤

화면을 가득 메우는 그늘진 여자의 얼굴. 위에서 언급됐던 리포터다.

그 앞에 마주 앉아 있는 현수, 우수에 찬 표정이다.

마치 삼류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

여자 이제.... 진짜 헤어지는 거네?

현수(심각).....

여자 그런거네?

꽤 팬찮은 외모지만 현수의 눈에 유독 크게 보이는 턱 밑의 커다란 점과 살짝 빠져나온 털.

이것이 이별의 이유인 듯 삶은 티를 감출 수 없는 현수.

여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우리?
현수 (감상)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여자(쳐다본다).....
현수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말.....(점을 힐끗 보고 고개 돌린다)
 (한숨)..... 미안하다....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현수. 이쯤 되면 관객도 짜증난다.
앞에 놓인 와인을 벌컥벌컥 마시는 여자. 힐끗, 정말 조심스럽게 여자를 살피는 현수.
잔을 내려놓는 여자. 뭔가 결심한 듯, 그리고 더욱 감상에 찬 표정.

6. 현수의 집 주차장 - 밤

지하 주차장. 주차 후 차에서 내리는 현수.
위 씬의 일은 모두 잊은 듯 상쾌한 표정. 발걸음도 경쾌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이런 그를 저 멀리 기둥 뒤에서 훔쳐보는 누군가의 시선.
스토킹, 혹은 납치, 살인 등을 하기 전 훔쳐보는 앵글이다.

7. 지하 엘리베이터 앞 - 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현수. 인기척을 느꼈는지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도 없다. 약간 공포 영화의 전조 같은 느낌. 뭐 잘못 느꼈겠거니 여전히 기분 좋은 현수. ‘땡’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도착하고 올라탄다.

그리고 문 닫히려는 순간 이를 저지하는 누군가의 발.

‘뭐야 이건’ 하는 시선으로 발부터 위로 훑는 카메라. 문 열리며 보이는 여자. 남루한 잠바 폐기, 남극 탐험에나 사용할 법한 배낭을 짊어지고 지방 풍의 패션(?). 20대 초반, 그러나 어찌 보면 소녀 같은 얼굴을 감추고 있는 정남이다.

그 옆에는 비슷한 행색에 과도한 곱슬머리, 두꺼운 돋보기안경,

역시 지 몸보다 큰 배낭을 짊어지고 있는 6살가량의 아이가(기동) 서 있다.

잠시 정지 화면 같은 세 사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들의 등장에 당황하는 현수.

현수와 빤히 시선을 고정한 채 올라타는 정남. 기동. 그리고 닫히는 문.

8. 엘리베이터 안- 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말없이 자신을 쳐다보는 정남과 몇 번 시선이 마주치는 현수.
'애, 또 나 알아 보네' 살짝 우쭐하다.
정남이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살짝 파진 가슴 선을 훔쳐보는 현수. 어~ 좀 있는데?
시선을 느꼈는지 돌아보는 정남. 현수. 정말 홀륭한 타이밍으로 시선 처리한다.

다시 쳐다보며 천연덕스러운 미소의 현수.

현수 (미소) 몇 층 가세요?
정남 (빤히)
현수 (미소) 여행 다녀 오나봐? 어디? 네팔?
정남 (여전히 빤히).....
현수 제페니즈?
정남

무안한 현수의 어색한 미소. 젠장. 대화 단절.

9. 엘리베이터 앞, 복도, 현수집 앞 – 밤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억지 미소 후 표정 바뀌며 내리는 현수.
그를 쳐다보다 슬그머니 내리는 정남과 기동. 복도를 지나는 현수.
뒤에서 자신의 방향으로 오는 녀석들이 신경 쓰이는지 힐끗 쳐다본다.
현수를 빤히 바라보며 쫓아가는 두 녀석.
애써 태연한 척, 그러나 따라오는 이들이 신경 쓰이는 현수.

현관 앞에 도착.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정남과 기동. 약간 긴장감 있는 화면이다.
위기감을 느끼는지 손으로 버튼을 가리며 급히 비밀번호를 누르는 현수.
계속해서 다가오는 녀석들. 한 번의 실패 후 열리는 문.
급히 들어가려는 순간 어느새 바로 옆에 다가와 말을 거는 정남.

정남 맞죠?
현수 (깜짝).....?!!!.....
정남 남현수의 ‘정오의 휴식’?

전라도 같기도, 충청도 같기도 한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정남. 잠시 이들을 쳐다보던 현수.
안도감과 귀찮음이 교차하는 미소로 사인을 해 주려는 듯 안주머니에서 펜과 종이를 꺼낸다.
사인을 휘갈기는 현수. 이런 현수를 빤히 바라보는 정남.
사인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표정이다.

현수 (사무적) 성함이?
정남 정남인데요.
현수 (이름 하곤) ...성은요?
정남 정남이요. 황정남.
현수 (사인하며) 황!정!남씨! 오늘이 며칠.....
정남 라디오 사연 보냈던 황정남이요.

현수 ?
 정남 미혼모.
 현수(의아).....
 정남(빤히).....
 현수 (그제 서야) 아~ 황정남?! 씨! (억지 미소) 아~ 근데 어찌나.
 아빠 못 만났구나? 이야~ 그래도 여기로 오면 안 되고 방송국이나.....
 정남 황보경 아시죠?
 현수 (억지 미소 그대로)누구?
 정남 남현수씨 중3 때.
 현수 ?
 정남 옆집 살던 누나.
 현수(표정 변하는).....
 정남 다섯 살 많고.
 현수(혹시).....
 정남 남현수씨 첫 경험.
 현수 !!!!!!!!

이제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인터컷으로 정남의 얼굴과 과거 보경의 얼굴이 겹쳐지고,
 라디오 사연에서 ‘아빠를 찾아 간다’는 얘기며 ‘꼭 찾아가라’는 등 그간 방송에서 전해 준
 정남 사연의 하이라이트가 짧은 INSERT CUT으로 지나가고.....

마치 ‘유주얼 서스팩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하나하나 다 들어맞는 상황.
 몸이 공중에 뜨는 듯 집안으로 이동하는 정신 분열상태의 현수.
 어느덧 거실 소파에 앉은 현수로 장면 전환.

10. 현수의 집, 거실 – 밤

소파에 앉은 세 사람. 넋 나간 현수.
 그와 달리 신기한 듯 이곳저곳 집을 둘러보는 정남.
 현수의 눈치를 보며 앉아 있는 기동. 침묵을 깨는 정남의 까칠하면서 투박한 한 마디.

정남 (두리번) 화장실이?.....
 현수 (정신 차리며) 저.... 잠깐.
 정남 ?
 현수 그르니까..... 그럼 사연에서 그 때 죽은 엄마가..... 보경이... 누나라는?
 정남 (끄덕)
 현수 (버벅) 너를..... 그러니깐 애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운 게 아니고.....
 정남 (말을 끊듯) 사연에 다 보냈는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의 현수.

정남 뒤에 둘망똘망 앉아 있는 기동을 보면,

정남 인사드려. 할아버지.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별떡 ‘할아버지~!!’ 하며 현수에게 안기려는 기동.
마치 뱀이라도 기어 온다 느끼는지 녀석을 피해 소파를 한 바퀴 도는 현수,
그러거나 말거나 같이 한 바퀴 도는 기동.

현수 (당황) 잠깐... 정지! 잠깐 스톱! 앉아 봐! 잠깐...

기동을 저지하는 정남. 기가 막힌다는 듯 이들을 빤히 보는 현수.
이럴 수가.....

[Cut To - 욕설]

정신을 차리려는 듯 거친 세수를 하는 현수.
잔뜩 젖은 채 거울을 쳐다보면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현수가 황당한 상상들을 보여준다.

‘봉기자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고, 만만했던 PD와 AD의 멸시를 받으며 DJ직에서 쫓겨나고,
광고 위약금 때문에 짐을 빼고, 반 지하로 이사를 가고, 술에 젖어 지내다가 배고픔에 빵을
훔치게 되고 도주 과정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급기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황당한 상상들. 짧은 INSERT CUT들을 통해서 보여 진다.

자신이 하는 상상에 소름끼치는 현수.

[Cut To - 다시 거실]

애써 밝은 표정 지으며 거실로 나오는 현수. 그러나 얼굴은 별경다.

현수 (애써 미소) 아~ 저기, 이게 그런 거네!

정남 ?

현수 가끔 그런 사람들 있더라. 아가씨가 지금....

정남 애 엄만데..

현수 그래. 애 엄마가! 여튼 그.... 사연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내가 그.....
오빠 같고 삼촌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다. 그치?

정남 당황 되죠?

현수 당황 많이 되지.

정남 나도 당황스럽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연예인이라네. 참~!!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당신만한 딸이 있나?

보경이 누나, 그렇게 된 건....슬퍼. 정말 슬픈 일이야. 나 안에서 울고 왔거든.

그런데....(주저) 그 때 그건 어떻게 알았는진 모르겠는데.... 그.... 누나랑 딱 한번 그럴 땐...
(뭐하는 짓이냐) 아이~ 나 아니야. 어려서..... 조준도 잘... 못하고.... 그랬다고?

정남 (툭툭 자신을 치며) 조준 잘 했어요.
현수 아니, 중3 짜리가 뭔 재주로 얘를 만들어.
정남 (슬쩍 고추 한 번 보며) 그러니까 재주도 좋지. 중3 짜리가.
현수 아~. 아니야. 당신 ‘황’ 씨잖아. 나 남씨. 성이 틀린데.
정남 엄마 성 뺐으니깐 ‘황’ 씨죠? 황보경. 황정남. (기동 가리키며) 황기동.

반사적으로 인사하려는 듯 일어서는 기동, 곧바로 저지시키는 정남.
세련된 현수와 투박한 정남의 말투가 상당히 대조적인 대화다.

현수(젠장).....
정남 (맞잖아)?....
현수 (이게 진짜) 아니. 진짜 왜? 여기 왜 온 거야?
정남 오라문서?
현수 (언제)....?....
정남 방송? 라디오에서?
현수 (정색) 아가씨. 지금 아가씨가 이러는 거 이거 범법 행위야. 무단 침입.
삼년 이하 징역이나 오백 이하 벌금!

이런 현수를 빤히 쳐다보는 정남. 이에 굴하지 않고 같이 쳐다보는 현수.
본의 아니게 눈싸움이 벌어진 상황, 뜻 모를 한 숨을 쉬는 정남.
좀 전까지와 다른 분위기다. 상황 파악을 했다는 듯.

정남(나즈막) 진짜 가요?!
현수 가야지!
정남 늦었는데?
현수 아직 차 있어.
정남 얘(기동) 지금 잘 시간인데?
현수(가라는 듯 손짓).....
정남 (일어서며 기동에게) 배낭 매라. 그럼 건강하세요.

짐을 챙기는 이들을 불안하게 쳐다보는 현수. 너무 쉽게 해결 되는 거 아닌가?
이 때 가방에서 너무나 의도적으로 스포츠 신문을 떨어뜨리고,
꺼내 읽으며 들으라는 듯 방백 수준의 혼잣말을 하는 정남.

정남 영화배우 박정민 비디오 파문. 어이구~ 어쩌다 글쎄.
스포츠 신문 봉필주 기자~ 이메일이~ 비오엔주 골뱅이.....

굳어지는 현수.

[Cut To - 시간 경과]

기동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현수 !!!!!

정중하게 배꼽인사를 하고 이불까지 다 깔아 놓은 드레스 품으로 들어가는 잠옷 차림의 기동.
이를 닦으며 지켜보던 정남. 황당한 표정의 현수와 눈이 마주치면 마치 원래 자기 집이었다는 듯
욕실 문을 닫아 버린다. 너무나 얄미운 문 잠그는 소리.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이게 뭔 상황인지 넋 나간 현수.

[Cut To - 현수의 방]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계.

아까의 울분에 잠이 오지 않는지 괜히 배게만 내리 치는 현수.
이리저리 뒤척이다 침대 밑에 숨겨놓은 시계며 통장이며 귀중품들을 다시 확인하는 유치함.
이 때 문 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
방문을 극도로 조심스레 열고 고개를 내미는 현수. 아무도 없는 고요한 거실.
까치발로 나와 주위를 살피지만 아무도 없다. 잘 못 들었나?

이 때 현수의 뒤, 저 멀리서 슬며시 나타나는 작고 검은 악마의 실루엣!
현수를 향해 달려오는 몽유병 기동이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는 현수. 기겁!
초점 없는 눈빛으로 마치 귀신이라도 들린 듯 뛰어오는 기동.
3센에서 자신이 흉내 냈던 몽유병 기동과 똑같은 모습.
칠판을 가는 느낌의 효과음이 공포를 더 하고....
눈앞에서 주온을 보는 듯 소리도 못 지를 정도의 공포를 느끼는 현수.
그러나 그를 지나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 멀리 뛰어가는 기동.
지나가다 ‘쿵’ 머리를 쟁고 소파로 걸어가 이내 풀어떨어진다.
사연으로만 들었던 몽유병의 실체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
황당함에 할 말을 잃은 신경쇠약직전의 현수.

11. 동, 다음날 – 오전

역시 자동으로 젖혀지는 오토 블라인드. 웬일인지 고장이 나서 덜컥거린다.
오만상을 찌푸리며 일어나는 현수. 왁자지껄한 거실에서의 소리.
잠을 못 잔 듯 푸석푸석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는 현수.
거실의 광경을 보고 기겁한다.

엉망이 되어 있는 집구석. 소파엔 옷들이 널려 있고 부엌에선 뭘 하는지 연기가 자욱,
도망치듯 지나가는 로봇 청소기를 쫓아 뛰어다니는 기동.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레스 품에 가보면 역시 개판된 가운데 현수의 고급 수트들은 구석에
밀려 있고, 알록달록 유치찬란한 색의 정남과 기동의 옷들이 자리를 차지한 광경.
잔뜩 홍분한 채 아침인사하려는 기동과 마주치면 기겁! 도망치듯 거실로 나오는 현수.
벽걸이 TV에 확실히 찍어 놓은 손자국이 현수의 마음을 찢어 놓고.....

결국 따라와서 아침 인사를 하고야 마는 기동. 돌아버리는 현수.
급히 이것저것 치우며 부엌으로 가면 아일랜드 바에 널려 있는 요일별 셀러드 케이스.
모두 까발려져 있다. 냉장고를 열어 보면 뒤집어져 있는 내부.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너무나 태연하게 현수를 대하는 정남.

정남 고기 없어요?
현수(짜증) !!!!!.....

[Jump Cut]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아침 메뉴는 샐러드 비빔밥이라는 이상한 음식.
천주교 신자인 듯 성호까지 그으며 기도하는 정남과 기동.
기도하는 두 녀석과 고추장 범벅이 된 샐러드를 번갈아 쳐다보는 현수. 어이가 없다.

정남 안 드세요?

현수금요일 아침은 커피랑 샐러드거든?

정남 어른이 반찬 투정 하면 쓰나?

현수 (발끈) 반찬 투정이 아니고..... (참자) 오늘 가는 거지?

정남 어디 가계요?

현수 아니 오늘 갈 거냐고? 당신들?

정남 오늘은 못 가는데?

현수 ...왜?

정남(밥알을 오랫동안 썹더니 다 삼키고) 갈 데가 없어서...

현수 !!!!!

죽여 버리고 싶은 현수. 까칠하기도 한 정남의 말투가 더욱 화를 돋운다.
아 되겠다 싶은지 설득 모드.

현수	저기 내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가씨 내 딸 아니야.
정남	아가씨 아니라니깐?
현수	나랑 뭐 닮은 데가... 봐 봐. 택은 쌍꺼풀 없잖아.
정남	(피식) 팔 년 전에 수술하시지 않았나?
현수	(이개) 얼굴형이....이...턱 선이 틀리잖아.
정남	얼마나 다행이예요.
현수(죽여버릴까?)!!!!....
정남	...(뭘?).....
현수	(폭발 직전) 유전자 검사 해?
정남	(여유) 피가 제일 확실하데요.
현수	(거의 폭발) 딸 아니면?
정남	기면요?
현수	결찰서 간다?

정남 (신문 읽으며) 영화배우 박정민. 어우~ 봉 필주 기자?.....
현수 (폭발) 아니 뭔 밑도 끝도 없이 딸이라고 쳐들어와서!!!!!!.....

이 때 타이밍 훌륭하게 재채기 하는 기동.
폭죽 터지듯 사방으로 튀는 밥풀. 온통 밥풀을 뒤집어 쓴 현수.
당황스럽지만 ‘풋~’ 웃는 정남, 역시 얼굴에 밥풀 가득한 기동.
현수의 눈치를 보며 길게 나온 콧물을 ‘쭉’ 빨아들인다.
굳어지는 현수.

12. 양수네 동물 병원 – 저녁

현수의 친구인 양수네 동물 병원.
나란히 앉아 있는 현수, 정남, 기동. 현수와 정남은 피를 뽑고 있다.

양수 (신난) 이야~ 완전. 이런게 진짜 사연 감이거든. 이야~.
현수 나 진짜~ 믿을 놈은 너 밖에 없어. 진짜. 응?
양수 자식에 손자까지 생기면 좋은 거라며?
정남 (추임새 치듯) 그러게요?
현수 넌 (정남) 좀 조용히 할래?
(양수에게) 행여나 이거 나불대면 너랑 나랑 동반으로 요단강 건너는 거야?
응? 재들은 (개들) 싹 다 된장 바르고?
양수 (힐끗) 아가씨가 정남이었어? 이야~ 사연이랑 인상이 좀 다르다...
현수 시끄럽고. 결과 언제 나와?
양수 열흘.

짜증만 쌓여가는 현수. 이 때 벽에 걸려 있는 옛날 앨범 자켓을 보는 정남.
80년대 발매된 이들의 1집 앨범. 잔뜩 품 잡은 어색하고 촌스럽기 그지없는 현수와 양수의 사진.

정남 아저씨. 옛날에 드럼 치셨죠?
양수 (힐끗 포스터를 보며) 아~. 저거?
현수 야. 저거 뜯어버려.
정남 (상냥) 저 때 진~짜 멋있었는데. 지금도 멋있으시네.
양수 (무관심) 어. 허허허. 멋있긴... 허허허. (한참 딴청 부리더니)
이야~! 딸 예쁘게 생겼다! 야~!!! 그리고 보니까 닮았네!
하하하!!!! 저거 알아? 나 기억해?! (기동에게) 사탕 줄까??!

너무나 기분 좋아진 단순 양수.
현수를 대할 때와는 다르게 침한 모습으로 어필하는 정남.
이런 이중적 모습의 정남이 만만치 않은 놈이라는 것을 느끼듯 노려보는 현수.
얄밉게 시선 피하는 정남.

13. 양수네 동물 병원 앞 - 저녁

병원을 나서는 세 사람. 양수는 정남에게 손까지 흔들어 준다.

정남	아부지!
현수	(노려보며) 아직 결과 안 나왔거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선.... 일단... 삼촌이라고 불러.
정남	(궁시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현수	아~ 거. 좀!.....

무섭게 노려보는 현수. 정남은 그러거나 말거나

정남 아~ 피 뽑았더니 좀 어지러운 게.... (힐끗) 개 수육 한 접시?
현수 (무시) 일주일 걸린다니깐 방 잡아 줄게 그 동안 거기 있어.
정남 집 놔두고 어디 가요?
현수 (시선 피하며) ...화장실도 하나고..... 불편하다고.
정남 괜찮은데.
현수 (버럭) 내가 불편하다고!!! (애써 진정) 호텔로 잡아 줄게.
거기 수영장도 있고 좋아.
정남 수영 못 하는데.
현수 (폭발 직전) ...모텔로 가던가.
정남 돈 아깝게 왜 모텔 가요?
현수 (폭발) 그럼 여관 가던가?!!!

이 때 인근 학원에서 우르르 나오는 학생 녀석들. 현수를 알아보는지 웅성거린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정남과 기동을 테리고 급히 자리를 뜨는 현수.

14. 주차장 - 저녁

리모컨으로 차 문을 여는 현수.
얼른 올라타며 벨트까지 매는 정남과 기동. 참 얄밉기도 하다.
차 좋다는 듯 쿠션의 감각을 즐기는 정남. 웃다가 현수와 눈 마주친다.

현수 (노려보며) 뒤로 타지?
정남 벨트 맸는데.

잠시 노려보다 시동을 거는 현수.
뒤에 앉아 시트에 발 올려놓는 기동이 신경 쓰인다.

현수 발 내려.

얼른 발 내려놓는 기동. 현수가 안 보자 몸을 돌리느라 시트에 발을 올리게 된다.
휙 돌아보는 현수의 타이밍 직전에 발을 내리는 기동. 그러기를 몇 번.
이번엔 이것저것 만지던 정남. 뭘 잘못 만졌는지 터질 듯 켜지는 음악.
극도로 짜증나는 현수.

15. 현수의 집 – 밤

홍분해서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현수.
소파에 앉아 이런 그를 천진난만하게 쳐다보는 정남과 기동.
현수의 움직임에 따라 고개도 왔다 갔다 하는 두 녀석.

현수 (홍분) 그럼 일단, 결과 나올 때까지만! 인데.....
 난.... 지저분한거 제일 싫어하거든?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우며) 꼽슬!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보이면 바로 바로 이거로 (청소기) 밀고 (부웅~)
 또.. 카펫 비싼 거니까 절대 여기서 놀면 안 돼. 알았지? (끄덕이는 정남 모자)
 그리고 저기는 (오디오, 음반, 책이 있는 곳) 절대 만지면 안 돼. 알았지?
 욕실은 씻고 나면 바로 물기 다 닦고....
정남 (대뜸) 아부지!

휙 째려보는 현수.

정남 아~ 누구 없잖아요.
현수 (이게 진짜).....
정남 냉장고에 고기 없는데?
현수 근데?
정남 돈 좀.....

정남을 노려보며 지갑을 펴는 현수.

현수 나도 현찰 없어.
정남 (의심).....
현수 (지갑을 보여주며) 봤지? 내일 찾아 줄게.
정남 (씨-익) 그게 플레이늄 카든가?

‘쾅’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현수.

[Cut To – 현수의 방]

침대에 누워 분에 겨워하는 현수. 이 때 밖에서 들려오는 한 줄기 기타 소리.

'카드가 있어야 장을 본다'는 자작곡을 부르는 정남. 애써 안 들으려 베개에 머리를 파묻는 현수. 잠시 조용해서 고개를 들어보면 냅다 들리는 클라이막스 부분.

[Cut To - 거실]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고 나오는 현수.

현수 (카드를 내밀며) 자! 여기 있으니까 가서 꽉꽉 쓰던지 깡을 하던지.... 너 기타 치지 마.
정남 대학가요제 출신이 왜 그러실까?
현수 대학가요제전 전국노래자랑이전 치지 마. 정 치고 싶으면..... 치지 마!

신경질적으로 돌아 들어가는 현수 뒤로 한 줄 텅겨 주는 정남. 멈칫 하는 현수. 소리 멈추고 다시 들어가려면 약 올리듯 또 한 줄. 멈칫, 들어가 버린다.

[사운드 선행 - 건아들 - '나 어떡해']

16. Montage - '지옥 같은 열흘'

[화장실 앞 - 오전]

불일이 급한 듯 들어가려 하지만 잠겨 있는 문. 신문을 가지러 간 동안 정남이 나오고, 쪼르르 들어가는 기동. 간발의 차이로 새치기 당한 현수.

정남 (스-윽 지나가며) 재 좀 걸리는데.
현수 (이런 쌩) !!!!!

[현수의 집 - 저녁]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현수, 그 깔끔하던 집이 제대로 시장판이 되어 있다. 알립게도 아끼는 카펫 위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두 녀석. 바닥에 떨어진 과자 가루가 유난히 크게 보인다. 별떡 일어나서 배꼽 인사를 하는 기동이 더 알립다. 죽여 버리고 싶은 녀석들.

[다음날 - 오전]

욕실에서 나오는 정남. 이번엔 먼저 들어가려는 듯 방에서 나오는 현수. 그러나 문이 붙어 있는 관계로 엉키는 두 사람의 동선. 이 때 바로 옆 드레스 룸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욕실로 들어가는 기동. 또 다시 순서를 빼앗긴 극도 짜증의 현수.

[다음날 - 밤]

오밤중. 냉장고를 열어보면 마구 뒤섞여 있는 이상한 반찬 봉투들, 국물 자국들. 좌절의 한 숨만 나온다.

[부엌 - 밤]

모두 잠든 한 밤중.

낑낑대며 홀로 냉장고에 머리를 쳐 박고 정리를 하는 현수.

이 때 또다시 귀신처럼 지나가는 몽유병 기동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냉장고에 머리를 들이 받는다. 다시 엉망이 되는 냉장고.

극도의 공포와 짜증을 느끼는 현수.

[방송국, 라디오 부스 - 오후]

라디오 부스에 거의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극 좌절 상태의 현수.

밖의 컨트롤 룸에선 PD와 스텝들의 뒷담화가 한창이다.

얼굴에 미소는 유지한 채 입술은 움직이지 않는 복화술 수준의 조심스런 대화.

PD 왜 저런 테니?

AD 어디 여자한테 된통 걸린 거 같은데?....

PD 저 선수가 그럴 리가 있어? (AD 보며) 어~. 입술 안 움직이는데?
(마이크를 켜며) 선배. 뭔 일 있어요?

현수 하루만 버티면 돼.....

‘나 어떡해’의 가사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17. 동물 병원 - 오후

양수 (차트 보며) 자식 맞네. (피식) 백 프로다 야.

무너지는 현수. ‘맞다니깐?’ 웃는 정남.

노래 끝.

18. 현수의 집 - 오후

고개 푹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는 현수.

정남 (기동을 밀며) 가서 할아버지한테 재롱 좀 멀고 와. 어여.

‘할아버지～～～!!’를 외치며 방으로 들어가는 기동.
던져지듯 쫓겨나고 부서질 듯 닫히는 문.

[Cut To - 거실 / 시간 경과]

별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정남과 기동.
서성이며 열혈 설득하는 현수. 사정에 가까운.....

현수 일단 전에 살던 동네에다가 집 얻자. 응?
 애들 클 때 환경 자꾸 바뀌고 그러면 안 좋아요.
(살짝 긁는 기동을 보며) 저거! 너 긁었지?! 긁었잖아?!! (기동, 마지못해 끄덕)
 그거 아토피야!! 큰일 나! 빨리 시골 가서 살아야 돼. 죽어!
 여기.. (강조) 진짜~!! 애들 키울데 아니다?
 공기 안 좋지. 맨 차들 쌩쌩 다니고,
 애들 막 차에 쳐서 팔 다리 꽉꽉 날라 다니고.....

열혈 설명하는 현수. 모노드라마 배우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 현수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정남, 기동.

[Cut To - 현수의 방]

부서질 듯 닫히는 문.
설득에 실패한 듯 침대에 점프해서..... 운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뭔가 비장한 각오를 하는 표정의 현수.

19. 동. 드레스 룸 - 밤

세상모르고 자고 있는 기동. 녀석을 쓰다듬는 정남.
그러다 조심스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검정고시 문제집.
열심히 공부한 듯 반 정도는 볼펜 자국으로 가득하다.
공부를 하려는 듯 엎드려 자세를 잡을 즈음 밖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
반사적으로 문제집을 숨기는 정남.

정남 ?

[Cut To - 거실]

무드 있는 음악에 무드 있는 조명.
와인을 세팅한 테이블 앞에 잔뜩 폼 잡고 앉아 있는 현수.
이리 앉으라는 듯 점잖은 그의 손짓에 좀 의아해 하는 정남.

현수 그리고 보니 그간 얘기도 제대로 못 나눴구나.
정남 (왜 이러시나).....
현수 (점잖게) 앉지.

매너 좋게 의자까지 빼 주는 현수, 주춤주춤 자리에 앉는 정남.
와인 한잔 따르는 현수. D.J 할 때와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다.

현수 그동안 힘들었지? 혼자 애 키우느라....
정남 (적응 안 되네...) 뭐... 사연에 다.....
현수 (잔뜩 심각) 사실 너희 엄마는.... 내 처음이자....마지막 사랑이었다.
정남
현수 (감상) 우린 사랑했지만.... 사랑하기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너희 엄마, 보경이 누나는... 그래서 너를 감췄던 거야.
 사랑하는 남자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 봐.
 차라리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미안하다.

5씬에서 여자 멀궈 낼 때와 너무나 흡사한 음악, 흡사한 방식의 현수 원맨쇼.
정남을 힐끗 쳐다보면 그의 말에 동요한 듯 어느새 술잔을 썩 비우는 정남.
'역시! 좀 통하네' 하는 마음에 얼른 술잔을 채워 주는 현수.

[Jump Cut]

두 병째의 와인이 따지고 정남의 빈 잔에 벌컥벌컥 술을 따라 주는 현수.
얼큰하게 취한 정남. 멀쩡한 현수는 보조 맞추기에 급급하다.

정남 (만취) 아니, 미혼모는 뭐 헤픘이, 응? 그런 거.... 내가 그래 보여요?
현수 (정색) 어~. 절~대! 누가?
정남 (격양) 나도!! 누가 뭐 안 도와줘도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푸후~) 나 이제 좀 있다가 갈 거야. 잡지 마요. 잡으면 큰일 나! 그냥.
현수 (옳지& 티 안 나게) 그래도 그동안 정도 들고....
정남 (울컥) 나 진짜 우리 기동이랑 둘이서 꿋꿋하게..... 아부지도 한 잔 하시고....

가득 술을 따라 주는 정남. 기분을 맞추고자 얼른 받는 현수.
완샷하는 두 사람.

[Jump Cut]

현수 (웃음보 터진) 그래서.... 내가... 캥캥.... 그랬거든.....
 누나! 보경씨! 우리 사랑하잖아!!! 캥캥 그랬더니 보경이 누나가.... (아~ 웃겨) 누나가....
 (흉내) 붕신! 이러는 거야. 우하하하!!!!

뭐가 재밌는지 웃다가 쓰러지는 정남, 이 때 이들 곁을 지나가는 몽유병 기동.

현수 어이! 황기동이. 일루와. 한잔 해.
정남 어~ 애한테 술을.....
현수 괜찮아. 재도 이제 어른이야. (술이 없음을 확인하고) 한 병 더?

술을 가지러 가다 넘어지는 현수. 깔깔대며 웃는 두 사람.

이게 무슨 분위긴지.....

20. 현수의 방 – 이른 아침

머리가 깨지는 듯 침대에서 일어나는 현수, 숙취에 괴롭다.
침대까지 온 게 기억이 나지 않는 듯 두리번. 머리가 아픈 듯 방향을 돌려 누우면 현수의 얼굴에
달라붙는 정남의 발. 세상에!!!! 옆에서 자고 있다. 유체 이탈되는 현수. 소리 없는 발악.
조심스레 일어나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현수.

잠시 후,
세상모르고 자는 기동을 들고 와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듯 조심스레 정남 옆에 눕힌다.
까치발로 나가는 현수. 그가 나가면 힐끗 눈을 뜨는 정남.

21. 동. 거실 – 오전

슬금슬금 집을 나서는 현수. 자기 집인데도 마치 일 끝낸 도둑 마냥 조심스럽다.
조그만 소리에도 멈춰서며 나가는 길. 현관까지 길은 멀기만 하고....
이 때 언제 나왔는지 안방 문 앞에 서 있는 기동과 눈이 마주치는 현수.
기동의 우렁찬 인사가 작렬하려는 순간, 입 모양으로만 ‘착하지. 셋~!’하며 녀석을 저지하면,
조용히 알았다면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는 착한 어린이 기동.
안도의 한숨을 쉬며 뒤를 돌아보면 어느덧 서 있는 정남. 대뜸 변명.

현수 회의 있어서.....

급히 자리를 피하려는 현수, 그의 뒤통수에 대고 한 마디.

정남 기억 다 나시죠?
현수 (식겁) 응?....
정남 안 나오?
현수 어..... 나.....
정남 여튼 연말까지 잘 해봐요.
현수 ?
정남 금방 간다니깐.
(얄미운 미소) 그렇게 불잡을 거면서 처음엔 왜 그러셨대?
현수(젠장).....

22. 라디오 방송국 – 오후

회의 중, PD는 다음 주에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할 사람들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어찌고저찌고 하고 있다. 골치 아픈 듯 딴 생각에 정신 나가 있는 현수.

PD 그래서 이파가 다음 주 출연자들 모이고? (눈치 보며) 선배? 보셔야죠?
현수 (귀찮은 듯) 그런 건 맥들이 좀 알아서 하시지.
PD (눈치) 그리고.... 미혼모. 황정남이.
 이 사연 안 오냐고 계시판 난리네. 청취율도 많이 떨어지고? 응?
현수 (힐끗)뭐 개 그거 사연 좀 안 왔다고 청취율 자빠지나?
PD 왜 안 그래요? 그 사연이 한 동안 우리 먹여 살렸는데. 저번에 국장님도 뭐라 하시던데.
현수 국장님이 우리 꺼 듣기는 하신 테니?
국장 (소리) 듣기는 하시지.

화들짝 놀라는 현수.

언제 왔는지 서 있는 국장. 일동 기립.

국장 어이. 디제이 아저씨. 광고 좀 찍더니 라디오 재미없지?
현수 뭘?... 무슨?
국장 통계 안 봤어? (PD에게) 애 안 보여줬나? 개 사연 소개하는 날이 평소보다 20% 높잖아.
 한 열흘 사연 안 오니까 바닥 치잖니. 방송 앓아서만 할 거야?

흔나는 학생들 마냥 서 있는 현수와 스텝들.

이 때 울리는 현수의 전화, 액정을 확인해 보면 발신자 ‘마귀’. 정남이다.

현수 ...응...
정남 여의도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현수 몰라. (똑)

이 때 갑자기 끼어드는 20대 후반의 AD.

AD 그래서 말입니다 국장님. 앓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현수 ?!!!!
국장 뭘 어떻게?
AD 제 친구 중에 사람 잘 찾는 애들 있거든요.
 이참에 직접 찾아서 스튜디오로 한 번 데려오는 거죠. 개 아빠랑 같이 해서.

식은땀을 흘리는 현수.

AD 애들 사람 찾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수배자도 아닌데.
국장 괜찮네. 데려와서 방송 하는 거.

PD 뭐... 추진할까요?
AD 그럼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현수 (벼락) 연락은 뭐?!! 뭘?!!!

깜짝 놀라는 사람들. 재 왜 저러나? 애써 진정하는 현수.

현수 (수습) 아니.... 그... 원래 사연이란 게 사실 신비감도 좀 .. 그래야 이게 맛깔스럽고....
또 테려 온다고 쳐요. 방송 해. 그 다음 부터는? 뭘? 어떻게?
사연 읽어 줘 봐야 재미없지. 나 같으면 안 듣는다. 그죠?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사연 올 거예요. 아빠를 만난 황정남.
그 이후의 스토리. 아~ 좋네. 한 석 달은 방송 그냥 주워 먹는....

또 울리는 전화벨, 무심코 받는 현수.

정남 나 좀 늦어요.
현수 (벼락) 네! 제발 좀 늦으세요!!!!

병진 얼굴로 현수를 쳐다보는 사람들.

현수 (진정)하여간 내가 보기엔 이삼일. 아니 내일 사연 온다. 내일.
사람들

얼굴엔 어색한 미소 가득, 어정쩡하게 서 있는 현수.

23. 현수의 집 – 저녁

소파에 앉아 있는 세 사람. ‘웃찻사’ 류의 개그 프로를 보며 시시덕거리는 정남과 기동.
그 옆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는 듯 힐끔거리는 현수. 뭔가 말할 듯 말 듯 망설인다.
가만 보면 세 명 모두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짙은 세 사람.
슬그머니 다리 내리는 현수. 그리고 들릴 듯 말 듯 혼잣말처럼 내뱉는 한 마디.

현수 (딴청) 사연 안 보내?
정남 예?
현수 (흠흠) 라디오....
정남 라디오 뭐요?
현수 (딴 데 보며) 아~ 사연 안 보내냐고?!!
정남?.....

점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정남과 그 뒤에서 감시하듯 서성거리는 현수.
'ㅈ 이 어디 있더라? ㅇ 은?' 하며 '툭...툭...툭...툭' 독수리 타법으로 참 느리게도 친다.

답답함에 조바심 나는 현수. 뒤에서 힐끗 내용을 보다가...

현수 내가 언제?
정남 ?
현수 (짜증) 내가 언제 그랬냐고?
정남 뭘요?
현수 쪼잔하게 언제 그랬어?
정남 (짜증) 카드 도로 뺏어 갔잖아요. 치사하게.
현수 내 카드 내가 가져간게 뭐가 치사한거야?
정남 그런걸 치사한거라고 하는 거라니깐.
현수 치사는 그런게 치사한게 아니고....
정남 아~ 알았어요. 알았어. 지우면 되지. 참 나~

대사 심하게 엉키며 티격태격하는 유치한 두 사람.

다시 쭉~ 지우는 정남, 처음부터 다시 독수리 타법으로 치기 시작한다.

답답함에 가슴 터지는 현수. 마침내 ‘비켜봐’ 정남을 밀어내고 자리에 앉는다.

분당 500타는 될 정도로 빠르게 치는 현수.

현수 (타다다닥....) 내용을 그렇게 쓰면 그게.... 톤이 틀리잖아. 톤이.
 '자상한 아버지는 선뜻 카드까지 내 주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얘야.....'

24. 라디오 방송국 – 오후

자신이 쓴 글을 방송하는 현수.

위의 신경질적인 말투와 대조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

현수 '얘야! 그까짓 카드 값이 대수냐.
 너희가 원한다면 깡도 해 주마'하며 호탕하게 웃으셨죠.
 멋진 남자입니다. 염치없이 민폐만 끼쳤던 저는 결심했죠.
(강조) 하루빨리 독립해서 더 이상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오늘은 이만 줄여야겠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연 보내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찾으신다면 (PD 쳐다보며 강조) 절~대 그러지 말아 주세요.
 저는 이렇게 사연으로만 여러분을 만나고 싶네요.
 00 동에서 철없는 딸 정남이.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읽으면서 너무나 만족해하는 현수.

[Cut To – 양수네 동물 병원]

강아지를 만지며 연신 ‘내 새끼~’를 연발하는 손님.

진찰하며 방송을 듣는 양수, 방송 내용에 어이없어 한다.

양수 (파식) 지랄하네.

손님 (정색) 에~?!!!

양수 (화들짝) 에?! 아니. 아니에요.

[Cut To - 방송국]

의심스런 눈으로 현수를 쳐다보는 스텝들.

AD 저거 좀 누가 시켜서 쓴 거 같지 않아요?

PD(의심) 톤이 틀린데 톤이.....

기분 좋게 멘트 날리는 현수.

현수 네. 정남씨. 사연 잘 들었구요. 하루빨리 꼭! 독립하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죠!

경쾌한 음악 흐르며....

25. Montage 시퀀스 - '사연과 실체'

[현수의 집]

컴퓨터 앞, 또 다시 독수리 타법으로 사연을 적는 정남.

정남이 전화를 받으러 가자 언제부터 있었는지 슬그머니 앉아 자판을 두드린다.

[방송국]

역시 의심스런 눈빛의 스텝들.

현수 (자상)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쁘신 와중에도 꼭 손자와 놀아주신답니다.

철없고 시끄러운 우리 아이는.....

[현수의 집]

거실에 앉아 정말 조용히 만화를 보는 기동.

이 때 대뜸 채널을 돌리며 기동을 밀어내는 현수.

시끄럽게 불륨을 높이고 소파에 널브러져 시시덕거린다.

훤칠한 어른이 치사하게....

[방송국]

현수 (자상) 자식과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 않는 모습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저는 왜 아빠의 저런 훌륭한 점을 안 닮았나 모르겠어요.

[현수의 집]

위의 TV 뺏어보던 상황이 이어진다. 과자 먹으며 캄캄거리는 현수.
깔끔 떠느라 겹겹이 허지까지 깔고 먹는 얄미운 모습.
옆에서 힐끗거리며 과자를 쳐다보던 기동. 슬며시 하나 집으려 하자.

현수 (쳐다보지도 않고) 물 떠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쪽으로 달려가는 기동.

[현수의 집]

컴퓨터 앞, 이젠 정남도 제외하고 혼자 자판을 두드리는 현수.
재밌는 내용을 쓰는지 혼자 시시덕거린다. 못 마땅하게 보는 정남과 기동.

[방송국]

현수 그러고 보니 남현수씨는 금융이나 통신사 광고가 어울리시겠네요.
 주변에서도 오빠가 전속만 한다면 싸그리 적금 들고 번호 이동한다며.....
(기분 좋은) 참~ 별말씀을 다.... 하하하....

의심 가득한 눈빛의 스텝들.

[현수의 집]

컴퓨터 앞, 또 혼자서 열심히 자판 두드리는 현수.
인기척에 뒤돌아보면 모니터 한 번, 현수 한 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정남.

현수 왜? 뭘?
정남 유람선은 데려간 적이 없을 텐데....
현수 (뭐 ~ 이씨 ~).....
정남 (얼씨구?) 백화점에서 웃도 뽑아 주셨다?
현수 (신경질) 가면 될 거 아니야?!

[한강 유람선]

찬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달리는 유람선.

갑판에서 기분 좋은 듯 이것저것 구경하는 정남과 기동.
그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잔뜩 인상 쓰고 서 있는 현수.
거센 바람이 스타일을 구긴다.

[백화점 - 오후]

소파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정남과 기동.
저 멀리 남성복 매장에서 옷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 현수를 지루하게 쳐다본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난 현수.

[Jump Cut]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큰 쇼핑백 가득 들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내려가는 현수.
그 뒤로 작은 아웃렛 쇼핑백 하나 달랑 들고 내려가는 불만스런 표정의 정남.

26. 라디오 방송국 – 오후

현수 네~ 명품으로 도배를 시켜 주셨다니 아버지가 무리하셨겠네요.
 황정남씨 사연 잘 들었구요.
 자~ 탄력 받아서 잠시 후 3부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예선에서 올라오신 네 팀의 주 장원 후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멘트를 날리는 도중 ‘청취율 방송사 토클 1위’라는 메모를 유리에 붙이는 PD.
현수, 폐재를 부른다. CM 나가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현수.
부스 안의 커튼을 걷어내자 드러나는 간이 무대와 대기하던 출연자들, 연주자들.
기분 좋은 듯, 긴장하지 말라며 일일이 인사 나누는 현수. 아주 여유가 넘친다.

여전히 붙어 있는 ‘방송사 토클 1위’라는 종이를 보며 조금 미안한지 정남에게 전화를 한다.
액정에 뜨는 ‘마귀’라는 수신 자명, 신호 떨어지고 전화 받는 정남.
대답 대신 누군가와 분주히 얘기하는 소리 들린다.

정남 (소리)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어. 저기. 난데..... 여봐!

소리로 들려오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정남.
'황제인씨?',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등의 소리가 들린다.

현수 (짜증) 전화를 받으면 딴 소리나...
정남 (소리) 아 왜요?
현수 (짜증) 왜요는?!.... (참자) ...그.... 뭐.... (어색) 저녁때 초밥이나 사갈까 하는데...

이 때 부스 밖에서 Frame in 되며 머리를 내미는 정남, 얼어붙는 현수.

정남 고기 땅기는데? (다른 스텝에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수 !!!!!

27. 스튜디오 밖 복도 – 오후.

정남을 끌고 나오는 현수. 자동으로 기동이도 떨려 나온다.

현수	너. 뭐. 지금 이거. 같이 죽자고?!!!
정남	죽기는, 앞길이 구만린데.
현수	(돌겠네) 얘 까지 데려오면? 아주 광고를 하시지?
정남	(기동에게) 내가 누구야?
기동	누나.
정남	어떻게 누나?
기동	큰 삼촌 딸 누나입니다~.
정남	됐죠? (들어가려는 정남)
현수	(붙잡으며) 됐으니까 빨리 가. 집에 가서 얘기해.
정남	(뿌리치며) 아~ 나 할거예요.
현수	(완강한 저지) 하긴 뭘 해! 너 늦어서 지금 출연 못 해. 빨리 가!

어설픈 육탄전을 하는 두 사람. 이 때 문을 열고 나오는 스텝.
마치 격려하는 분위기로 갑자기 딴 청 피우는 혼수. 순발력 많이 좋아졌다.

현수	(정남에게) 자~ 긴장하지 마시고.....
스텝	황제인씨. 들어오세요.
정남	(상냥) 네~~

28.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 – 오후

교통 방송이 나가는 스튜디오. 카메라며 모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교통방송에서 나오는 사고 내용, 어딘가 이들의 관계와 닮은 듯.
정남을 노려보는 살벌한 분위기의 현수. 얇았던 것도 눈을 피하는 정남.
밖에 앉아 있는 기동에게 말 거는 사람들을 보며 더 불안해하는 현수.
PD의 'Q'사인을 못 보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현수 (벼벽) 네... 삼부는..... 그....보이는 라디오 시간이고요..
(대본을 찾으며) 그... 네~.. 네~.....
연말 왕중왕전에서 우승하시는 분께는.... 그랜드 피아노가 수여 되겠고....

당황한 가운데 계속 벼락 거리는 그를 의아하게 보는 사람들.
현수는 땀을 한 바자니 흘린다.

현수 도전자들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정적).....박수.

박수치는 사람들. 어색한 분위기다.
음악 선행.

[Cut To - 시간 경과]

한 참가자의 무대. 샤크트 창법의 열창을 하며 나름대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치는 사람들. 잔뜩 긴장한 모습의 정남.
그런 그녀를 슬쩍 보더니 더욱 열광적으로 박수 치는 현수.

현수 (약간 오버) 네~. 김동철씨. 잘 들었구요. 참가 번호 3번이었습니다.
(강조) 3번!! 아~ 유력한 우승 후보! 네티즌 투표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그럼 잠시 후 투표를 시작..... (정남 슬쩍 보며) 아~. 한 분 더 계셨죠?
죄송합니다. 늦게 도착하신 분이라성함이..... 황제인씨.

정남 (긴장) 네....
페널 성함이 독특하시네요? 존(JOHN) 제인(JANE) 할 때 그 제인인가요?
정남 (긴장)...건널 제에 어진 인. 어질게 살라고 엄마가 지어주셨습니다.
현수 (말 끊듯) 네! 제발 좀 어질게 사시길 바라고요..... 빨리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잔뜩 긴장해서 올라가는 정남.
이런 정남의 모습을 보고 노골적으로 정남의 긴장감을 북돋우려는 현수.

현수 네. 앞 분이 너무 잘해 주셔서 긴장되시겠어요. 앞 분보다 더 잘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신 노래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노래네!
우리 저번에도 한 분 이 노래 하다가 시원하게 갈라지지 않았나? 하하하....

주변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하다 반응이 없자....

현수 들어보시죠.

반주자의 평범한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돌아가는 무대 조명. 더 긴장한 모습의 정남.
그러나 시작할 타이밍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며 서 있다.
방송 사고를 직감한 듯 당황하는 전반 연주자와 스텝들.
현수는 애써 감추려 하지만 실수하길 바라는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간이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밝아지는 실내.
피아노 연주도 멈추고 당혹스런 분위기. 머뭇거리던 정남. 옆에 놓인 기타를 맨다.
현수가 정리 멘트를 날리려는 순간.

정남 (연주자에게) 제가.... 다시..... 할게요.

호흡을 고르는 정남. 숨죽이고 그녀를 지켜보는 스튜디오 안의 사람들, 긴장감이 흐른다.
그리고 정적을 깨는 기타 줄 퉁기는 소리. 좀 독특한 리듬감으로 시작하는 전주.
그리고 시작되는 그녀의 허밍. 전혀 다른 느낌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어찌 보면 혼한 팝송이지만 마치 원래부터 그녀의 노래였다는 듯 독특하면서 환상적인 창법.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가창력이다. 놀라는 현수와 사람들.
부스 밖에서는 불펜까지 떨어뜨리는 PD. 어느 덧 노래에 이끌려 반주하기 시작하는 건반.
세션들도 동참하기 시작하며 환상적인 즉석 무대가 펼쳐진다.
스튜디오 안은 이미 완전한 그녀의 페이스.

29. 현수의 집 – 밤

마주 앉은 두 사람, 팽팽한 느낌의 정적.

현수 좀 합디다?
정남 좀 하죠.
현수 나가지 말자.
정남 나갈 건데요.
현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자.
정남 죄송한데 나가야겠어요.
현수 (폭발) 너!! 뭐 사춘기 때 못한 반항 일시불로 하는 거여?!!
내가 요새 인생이 아주.....(말문 막힌).....살얼음판이야!!!
정남 기동이 깨요.
현수 (답답한...목소리 조금 낮추고) 왜? ...왜 꼭 하필 우리 방송이냐고?
(설득) 그래. 인정. 요새 다 니 덕이야. 니 덕에 청취율도 올라가고.
상금 때문이야? 그거 상금 없어. (지갑 열며) 내가 카드 다시 줄게.
정남 (피식) 출연 등록이 되놔서.....
현수 (폭발 직전) 아프다 그러자. 맹장 터졌다고.
정남 맹장은 제작년에 뻬는데....

뒤집어 지는 현수, 이상한 액션으로 땅깡을 부린다. 별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

현수 너 애까지 있는 애가 애 교육에나 애써야지. 노래나 부르러 냉길라고. 웅?!
누구 닮아서. 아주 그냥 커서 뭐가 될라고?! 엉?!!

약간은 냉소적인 눈으로 빤히 쳐다보는 정남.

정남의 눈빛에 멈칫하는 현수. 팬히 또 화를 낸다.

현수 왜?! 뭘?!!

정남 노래하고 싶은 거. 누구 떠올렸을 거 같애요?
현수

갑자기 할 말 없어진 현수. 한 숨 쉬며 일어나는 정남.

정남 미혼모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현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정남.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생각 복잡해진 현수. 맹꽁 놓던 자세 그대로....

30. 동 – 다음날 아침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세 사람.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만 실내를 가득 메운다. 서로의 눈치를 보는 현수와 정남.
참 타이밍 절묘하게 계속해서 눈이 마주치고 피하기를 반복하더니

현수 (딴청)애는?
정남(힐끗)?
현수 (짜증) 아 노래 부르러 냉길 때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방송국 나올 때?

표정 밝아지는 정남. 하지만 애써 숨기며

정남 뭐.... 같이 다니...
현수 (단호) 안 돼. 안 돼! 저... 거기. 그 방송국에 나 아는 사람들 많다고.
쟤 혹시라도 ‘엄마. 엄마’ 그러면 사연 보낸 인물이랑 설정이 대충 맞아 떨어지잖아.
알아서 소문낼 일 있어?
정남 그럼..... (신난) 유치원 보내면 되겠네. 우리 얘기 유치원 갈까?

좋다며 심하게 끄덕이는 기동, 기분 좋아진 정남.
그러나 묘하게 기동을 쳐다보는 현수.

현수 (기동에게) 어이. 거기.
기동?
현수 내가 누구야.
기동 할아!... (눈치) ..벼..지....

안 되겠다는 듯 쳐다보는 현수.
왜 저럴까 싶은 정남, 눈치 보는 기동.

[Cut To - 거실 / 시간 경과]

큰 종이에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도표를 그려 놓고 열렬 설명하는 현수.

- 현수 여기 할아버지 있지?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자식을... 셋 낳았는데 (그리면서) 삼형제라고 하자.
 그 가운데... 가운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막내가 너네..... 친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럼 성이 같은데?
 (바꿔 그리며) 그럼 외할아버지가 되는 걸로 하면 되지.
 그리고.... 이... 여기 할아버지가 또 1남 1녀를 낳았는데.....
 그렇지 이 1남이 너네 아빠가 되는 거지.
 (빤히 쳐다보자 짜증)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라고!
 (진정) 자. 다시. 그래서 여기서 너네 아빠가 딸을 낳았는데 그게 너고,
 요기 1녀가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게 얘(기동)고.
 그럼 너랑 애랑은 사촌.....
 그럼 나랑 성이 틀린데?
 (버럭) 그럼 이 여자를 남자로 바꾸면 되지. (진정) 그래서 둘이는.....
 그 사촌 동생, 누나 지간. 나랑은..... 8촌이고.... 삼촌.
 그럼 외삼촌이라고 불러야.....
 (버럭) 앞으로 그냥 그렇게 불러! 외삼촌!!
 (짜증은) 그럼 이 위에 아빠들은 어떻게? 엄마는 다 어딨다고 해요? 물어보면?
 (기동 힐끗 쳐다보며) 연기 좀 하나?
 기동 ?

31. 동 - 오전

주섬주섬 나갈 준비를 하는 현수와 기동.
배탈이 난 듯 괴로운 표정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남.

- 현수 내가 그거 유통기간 하루 지났겠지?
 아깝다고 쳐 드시더만.
 (기운 없는) 하루는 그냥 먹어도 되는건데.....
 현수 아! 지금 간다고 했다고! 빨랑 나와.
 (배 쓰다듬으며) 어우~ 나..... 그냥 아빠가 데려다 주시면 안 되나?
 현수 (짜증) 내가 얘를 어떻게 데려다 주나?
 정남 (짜증) 아 그냥 당당하게 데려다주는 게 더 의심이 안 가는..... 어우~.....

다시 치밀어 오르는 듯 화장실로 들어가는 정남, 짜증스런 현수.

기동을 보면 어서 가자는 듯 신발까지 신고 열린 현관문에 매달려있다.

32. 어린이 집 앞 – 오전

기동이 데리고 어린이 집에 간 귀찮은 현수.
그 앞에서 서로 합을 맞춘다.

현수 내가 누구야?
기동 삼촌이요.
현수 어떻게 삼촌이야?
기동 아빠네 할아버지네 둘째 아들 삼촌이요.
현수 부모님은?

갑자기 슬픈 표정 짓는 기동.

현수 잘~했어.

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표정 변하는 기동.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33. 원장실 – 오전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현수.

선생 1 (나가며) 원장님 금방 오실 거예요. 잠시만.
현수 (묻지도 않았건만) 조카예요. 외가 쪽. 하하..... (가리키며) 황기동.

선생 나가고 다시 짜증스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현수.
기동은 열린 문틈 사이로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느라 정신이 없다.

현수 얘. 일로 와서 얌전히 있어.....(궁금해진) 뭐 보는데?

기동의 시점. 또래의 통통한 여자아이 무궁화에게 시선을 뺏기는 기동.
기동의 머릿속에선 - 만화 영화 주제가 같은 - 자신만의 러브 테마가 흐른다.
자신도 궁금해진 현수. 뭘 이렇게 보나 하며 따라서 본다.

그 때, 무궁화 옆에서 돌아서는 우아한 미모의 20대 후반 원장(조모)을 발견.
그녀도 현수와 눈이 마주치고.... 너무나 환하게 웃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조모를 보며
현수의 머릿속에서도 그만의 테마송이 흐른다. 각자의 테마송에 젖어 있는 현수와 기동.
상당히 닮은 두 사람의 모습이 한 화면에 잡히면 두 곡의 노래가 뒤엉키는 이상한 사운드 믹싱.
화사하게 웃으며 현수 앞으로 다가온 조모.

현수 (대뜸) 얘, 아들 아니에요.

[Jump Cut]

차 한 잔씩 앞에 놓고 현수와 조모. 화사한 그녀의 미모를 힐끔거리는 현수.
그 넉살좋던 현수가 조모 앞에선 웬지 수줍은 소년 같은 모습을 보인다.
기동은 여전히 머리를 내밀고 무궁화 관찰에 여념이 없다.

조모 이 동네 사신단 애긴 들었어요.
현수 (긴장) 아...네....뭐 저쪽 그 신축.....2동.....

정말 긴장한 듯 시선조차 맞추지 못하는 현수.
현수의 이런 모습에 연예인은 다 까칠하려니, 기동에게 관심을 돌린다.
조모의 감정을 느꼈는지 수습해보려는 현수. 하지만 타이밍은 이미 져 멀리.....

조모 (기동에게) 아가. 뭐 보니?

기동을 억지로 자신의 옆에 앉히는 현수.

조모 이름이 뭐야?
기동 (우렁찬) 황기동 입니다!
조모 (피식) 우리 기동이 삼촌이 잘 해줘?
기동 (역시 우렁찬) 아빠네 할아버지네 둘째 아들 삼촌입니다!
조모 씩씩하네. (현수에게) 얘기 부모님은요?

뭔가 말하려다 기동을 쳐다보는 현수. 기동은 연습했던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34. 어린이 집 밖 – 오전

문 밖으로 현수를 배웅 나온 조모.

현수 그럼 밤에 데리러....

긴장한 듯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돌아서는 현수.
약간 맘 상한 표정의 조모. 잠시 그러다 돌아선다.
'이건 아닌데'하는 표정의 현수.
슬쩍 돌아서 그녀의 뒷모습을 돌아보면, 아름답다!!

35. 현수의 집 – 저녁

거실, TV를 켜 놓고 앉아 있는 세 사람. 세 명 다 양반다리를 하고 있다.

현수는 조모의 여운이 남았는지 생각에 잠겨 위 쁜의 표정 그대로 넘 놓고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기동을 안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정남.

정남 친구들 많아?
기동 (놀라운) 애들이... 하애.
정남 (컥) 여자는 몇 명 있어?
기동 너 댓 명?
정남 물 좋아?
기동(있다는 듯 오~!!! 고개 끄덕 끄덕 !!!).....
정남 찍은 애 있어? 이름이 뭐야?

부끄러운 듯, 무궁화 생각이 나는 듯 웃기만 하는 기동.

정남의 재촉에 컷속말로 쑥닥거린다.

이런 녀석들의 대화를 안 듣는 척, 하지만 다 듣고 있는 현수.

정남 (놀란 듯) 그래? 그래서 원장님이 또 뭐래?

'원장님'이란 말에 솔깃 하는 현수. 그러나 또다시 소곤소곤 컷속말하는 기동.
이번엔 정남도 컷속말로 대꾸한다. 궁금해지는 현수.
표정은 관심 없는 듯 하지만 슬그머니 목이 다가가는 것이 대화에 끼고 싶음에 틀림없다.
노골적으로 현수를 약 올리듯 컷속말을 하는 정남. 눈이 마주치면 삐지는 현수.

현수 (짜증) 아이~거..... 들어가서 놀던가. TV 보는데.....

신경질적으로 TV 볼륨을 높이는 현수. 재미있다는 듯 현수를 힐끔 보는 정남.

정남 궁금하세요?
현수 (못들은 척).....
정남 끼고 싶구나.
현수 (짜증) 시끄럽거든?
정남 그래서 컷속말로 하잖아요.
현수 (이걸 확)
정남 (씨-익) 저거 재밌는 거 한다.

다시 TV 시청에 집중하는 기동과 정남.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자 깔깔대며 웃는 두 녀석.

녀석들이 재미있어 하자 인상 구기고 채널을 확 돌려버리는 현수.

보지도 않는 종교 방송의 '명상의 시간'을 틀어 놓고 딴청을 부린다.

리모컨도 숨기는 유치함. 치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는 정남.

정남 저거 누가 본다고?
현수 즐겨 보거든!!!!

잠시 정적, 그리고 정적을 깨는 요란한 기동의 방구 소리.
자신의 방구 소리에 깜짝 놀라는 기동. 웃음이 터진 정남.
그리고 너무나 웃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웃음을 참는 현수.
맘 놓고 웃지도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
이런 현수를 쳐다보는 정남.

결국 참지 못하고 ‘풋~’ 웃음이 세어 나오는 현수.
마치 N.G 컷 같은 느낌.

정남 (약 울리듯) 웃었죠.
현수 안(큭)...웃었어.
정남 웃었구만?
현수 안 웃었거든.

이 때 왜 그러냐는 듯 빤히 쳐다보는 기동과 눈이 마주치면 터져 나오는 웃음.
참느라 미치겠다. 결국 참지 못하고 리모컨을 넘기며 자리를 뜨는 현수.

36. Montage – 동

어느덧 이들과의 동거 생활에 많이 익숙해진 모습의 현수.

[오전]

이제 막 잠에서 깬 정남이 거실로 나오면 소파에 널브러져 요가TV를 보는 현수.
아침 인사 대신 대뜸.

현수 (침얼) 밥 안줘?
정남 (깜짝, 뭐냐)...?.....

[오전 식사]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정남.
옆에선 정남이 건네주는 국이며 밥을 능숙하게 나르는 현수. 짜증스런 표정이지만 할 건 다 한다.
기동도 수저며 젓가락이며 상 차리는데 한 끗 하고..... 나름대로 박자가 잘 맞는 세 사람.
전형적 한국 토종 식단이 차려진 밥상에서 식사하는 세 사람.
냉장고의 다이어트 식단표는 사라졌다. 잘 먹는 현수.
국그릇, 밥그릇도 셋, 계란 후라이도 셋. 우연히도 ‘3’이라는 숫자가 재밌게 배치되어 있는 식탁.
식사 중 재채기를 하려는 기동. 너무나 자연스럽게 코를 막으며 저지시키는 현수.
재채기가 가라앉는 기동, 다시 식사에 열중하는 세 사람.
세 명 모두 양반다리를 하고 있다.

[오전 욕실 앞]

현수의 방, 욕실, 드레스 룸 앞. 동시에 나오는 세 사람.
전 같았으면 심하게 엉키는 동선이지만 너무나 절묘하게,
너무나 능숙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세 사람.

[오전 출근]

드레스 룸. 출근을 하려는 듯 거울 앞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 현수.
그 아래서는 기동이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있다.
현수 나가고 쪼르르 쫓아 나가는 기동. 다시 들어와서 박수로 거울의 전등을 끈다.

[오후 청소]

청소를 하는 세 사람. 쓸고 닦고, 빨래를 널고, 유리창을 닦고.....
정말 세 명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묘한 콤비네이션으로 집안 청소를 하는 세 사람.

[오밤중]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려는 현수.
이 때 몽유병 기동이 뒤를 지나가면 보지도 않고 머리통을 돌려 방향을 전환시켜 준다.
왔던 방향 그대로 돌아가는 기동.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익숙한 모습의 현수.

37. 방송국 회의실 – 오후

보이는 라디오에 대한 회의가 한창인 회의실.

PD 하여튼.... 내일 월 장원 뽑는 날인데. 이거 보이는 라디오 반응 괜찮네.
 (AD에게) 개 연락 했지? 제인? 개 진짜 꼭 나와야 된다. 늦지 말고 일찍 오라고 해.
AD 노래는 좀 하는데 애가 좀 싸 보이지 않아요?
현수 ?.....
AD 시골서 왔나 봐? 패션 열라 구리던데.
PD (능글) 싸 보이는 건 모르겠고 애가 좀 어딘가 은근히 색기 있더라. 그치?
AD 그죠? 어우~ 근데, 난 옷 못 입는 애들 싫어서.....

기분 나쁜 현수, 뭐라 할 수도 없고.....

PD (탄력 받은) 은근히 가슴도 있더라니깐?
 노래하는데 (흉내 내며) ‘우아아아~~~’ 이야~ 좋더만.
 그런 애랑 한 일주일 어디 가서 질편하게..... 그런 애들이 침대에서.....

현수 (버럭) 야! 너 이 쌩! 지금 출연자, 어린 애 한테... PD란 놈이.....

갑작스런 현수의 포효에 병 짓는 사람들.

현수 너 진짜. 딸도 있는 놈이 말이야?
너 나중에 누가 니 딸한테 똑같이..응? 좋아?!!!

좀 오버했다 싶은지 대사를 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가 버리는 현수.
상황 파악 안 되는 사람들.

38. 어린이 집 원장실 – 오후

원장실 앞. 잠시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는 현수.
일하고 있는 조모를 발견, 애써 경쾌한 모습으로 말을 건넨다.

현수 다른 게 아니라... 조카 때문에 힘드신데...
와인 좋아하세요? 요 앞에 와인바, 달콤하다고...

장난스런 현수와 달리 조금 진지한 조모.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은 현수.

조모 얘기는 당분간 봐준다고 하셨죠?
현수 뭐 (얼버무리는)...그냥.
조모 있는 동안 조카한테 신경 좀 써 주시지...
현수 ...에?
조모 기동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애들이 솔직하잖아요..
기동이는 개랑 놀고 싶어 하는데 여자애가....(머뭇).....기동이 촌스럽다고 안논데요.
현수
조모 요즘 애들이 그런 거에 민감해요. 아파트 평수도 따지고.
보니까 얘기 웃이 좀 많이 낡았던데.

39. 동 / 어린이 집 – 오후

돌아다니는 꼬마들을 뱀이라도 되는 듯 피하며 기동을 찾는 현수. 어린이 집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기동을 발견한다. 유난히 초라해 보이는 기동의 모습에 화가 나는 현수.

40. 현수의 집 – 오후

아무도 없는 집에서 교육 방송을 보며 검정고시 문제집을 푸는 정남.

이 때 울리는 전화.

정남 네?
현수 나와!!!
정남 ?

41. 백화점 – 저녁

고급스런 백화점 로비로 들어서는 세 사람.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정남과 기동. 아직도 홍분 상태의 현수.
주위를 둘러보더니 어디론가 끌고 간다.
점프 컷으로 고급 여성복 매장이 밀집된 백화점 복도를 지나는 세 사람.
앞서가는 현수, 얼떨떨한 표정으로 쫓아가는 정남과 기동.

[Cut To – 고급 여성복 매장]

딱 보기에도 고급스런 명품 여성복 매장.
손님은 없고 깔끔한 여 매니저가 괴이한 표정으로 화장을 고치고 있다.
현수 일행 들어오자 얼른 자세 정돈, 현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간다.

매니저 어서 오세요~ 어머.
현수 (아직 홍분) 네. (대뜸) 저기 얘(정남), 조카예요. 조카.
매니저 (누가 물어봤나).....?.....
현수 그..... 좀 우아한 걸로. 도도해 보이고. 몇 벌 살라고 하는데.
매니저 아! 네.....

봉 잡았다는 듯 표정 밝아지는 매니저.

[Cut To – 아동복 매장]

역시 고급 아동복 매장. 약간 당황스런 표정의 점원.

기동 (우렁찬) 아빠네 할아버지네 둘째 아들 삼촌입니다!
점원 (뭐냐 얘넨?).....
현수 뭐가 비싼 거예요?
점원 (정신 차리며) 아. 네. 우선.....

급히 옷을 고르는 점원. 이것저것 둘러보는 현수.
마침 마네킹에 입혀 놓은 옷이 눈에 들어온다. 입고 다니긴 좀 과한,
마치 중세 유럽 귀족 아이들이 입었던 풍으로 디스플레이 된 옷.

[Cut To - 여성복 매장]

드레스 룸에서 급히 현수를 부르는 정남의 손.

현수 왜?
정남 저기.... 이거.
현수 맘에 안 들어?
정남 아니..뭐..... 옷은 좋은데. 이거....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된다는 듯 드레스 룸 커튼 사이로 가격표를 내미는 정남.
잠시 보더니 옷을 빼앗듯 낚아채 마구 구겨 버리는 현수. 당황하는 정남과 점원.

현수 이제 사야 되는 거야. (점원에게 옷 내밀며) 일단 이거 싸 주시고 다른 옷도
..... 그러니까 약간 예술가 필도 나면서....

[Cut To - 아동복 매장]

쇼핑백 한 보따리 들고 매장을 나오는 현수와 기동.
이들의 뒤통수에 정중하게 배꼽 인사를 하는 점원.
이들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홀라당 웃이 벗겨져 있는 어린이 마네킹들.

42. 어린이 집 – 오전

약간 당황스러워 하는 조모의 모습.
그녀의 시점으로 보이는 기동과 현수. 꽉 빼입고 온 기동.
어제 매장에 디피 됐던 약간은 비현실적인 영국 신사 복장이다.
낡은 뿔테 안경도 번쩍번쩍한 금테 안경으로 바뀌어 있다.
현수는 ‘봤냐?’하는 표정으로 기분 좋게 서 있다. 귀여운 기동의 얼굴.

43. 어느 사무실 – 오전

4-5명정 정도의 직원이 있는 조그만 사무실.
위 기동의 어른 버전인 상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각종 조잡한 카다로그를 내밀며 어설픈 영업을 하고 있는 어설픈 정장 차림의 상윤.

상윤 다음 달 상장 예정 이구요. 상장 기념으로 진짜 특별히 이번 주에 구입하시면...
직원1 (짜증) 아 진짜!.. 안사요. (다른 곳 가리키며) 저기. 저 사람은 살지 모르겠다.

무안하게 인사하고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는 상윤.

다가오는 그를 슬쩍 쳐다보는 직원.

상윤 안녕하세요. 저기 이번에....

직원2 (전화 받는 척 나가며) 여보세요?

인터넷을 열어 놓은 채 자리를 비운 직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상윤.

자리를 비운 직원의 모니터에서는 보이는 라디오의 다시 보기가 플레이 되어 있다.

마땅히 시선 둘 곳도 없기에 모니터를 쳐다보는 상윤.

플레이어에선 정남의 지난 주 모습이 재생되고 있다.

‘혹시....’ 하는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상윤.

44. 라디오 방송국 – 오전

복도와 스튜디오 문 사이.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는 현수와 정남.

정남의 모습은 문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정남 (소리) 이거 좀 오버 하는 거 같은데?

현수 거 기껏 사 입혔더만. 준비해야 돼 빨리 안 들어와?

정남(소리) 화장 너무 요란하지 않아요?

현수 카메라 받을라면 좀 진하게 가야 된다니깐.

정남 (궁시렁) 뭔 마당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현수 (짜증) 아 진짜. 싫으면 오지 말던가.

신경질 내며 들어가는 현수. 어색한 정남의 팔만 보인다.

45. 스튜디오 – 오전

보이는 라디오 준비로 분주한 실내.

대기자들은 밖에서 각자 연습하기에 바쁘다.

이것저것 점검하는 스텝들.

PD 야. 걔, 제인. 전화 해 봤어?

AD 도착은 아까 했다는데요?

PD (약간 짜증) 조용필이야 신승훈이야. 왜 맨 날 마지막에 등장해?

이 때,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누군가를 보며 일순간 얼음이 되는 PD와 AD.

약간 짐시 풍에 고급스런 의상. 자연스러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정남이다.

웃이 날개라더니 사람 정말 달라 보인다. 대기실 내의 모든 시선을 앗아가는 그녀.

언제 투덜거렸냐는 듯 서로 앞 다투어 정남을 환영하는 PD & AD.

슬쩍 이들의 반응을 느끼며 남모르게 승리의 미소를 날리는 현수.

[Cut To - 방송]

보이는 라디오 방송이 한창 진행 중인 스튜디오.
groove 풍의 발랄한 노래로 스튜디오를 휘어잡는 정남.
춤까지 섞어 가며 나름 화려한 무대 매너를 선보인다.
경연장이 아닌 하나의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의 스튜디오.
컨트롤 룸에서는 언제 정남의 육을 했냐는 듯 박자까지 맞추는 스텝들.
컴퓨터 모니터에서 진행되는 네티즌 투표에서는 압도적 차이로 정남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46. 방송국 앞 – 오후

기분 좋게 방송국에서 나오는 정남.
이 때, 그녀를 부르는 소리.

상윤 (소리) 황제인!!!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정남. 이내 굳어진다.
반갑게 웃고 있는 상윤과 달리 여전히 굳어 있는 정남.

상윤 제인이 맞구만. 오빠야. 상윤 오빠. 나 기억하지?
제인네.....

이내 어색한 웃음의 정남. 웃음 뒤로 긴장했음이 느껴진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다스러운 상윤.

상윤 나 그거 라디오 보다가 깜짝! 진짜 너~. 이야~ 어떻게 거기서 니가 나오냐?
이 근처에... 임원회의 있어서 온 김에 혹시 너 만날라고.....
정남
상윤 (머쓱) 나 안 반가워?
정남 (정신 차리며) 아니.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상윤 (씨-익) 이야~ 예뻐졌다!! 이야~ 6년 만인가? 서울 언제 올라왔어?
정남 ..아... 그냥.... 몇 주... 한 달 쯤.
상윤 너 노래 죽이더라. (흉내 내며) 우아아아~~~ 이야~. 절끔했어. 우하하하하!!!!!

가벼워 보이는 상윤. 이런 녀석을 묘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정남.

상윤 이야~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밥 먹었어? 일단 가자.

상윤에게 이끌려 가는 정남.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진지하고 긴장한 모습.

47. 현수의 집 – 저녁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현수. 그 옆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정남과 기동.
현수는 은근히 끼고 싶은 듯 연신 그들의 판을 힐끗거린다.
꼬물꼬물 그림을 맞추는 기동. 정남은 딴 생각을 하는 듯 넋이 나가 있다.

기동 엄마 차례.
정남
기동 엄마.
정남 (정신 차리며) 어? 어. 오늘 그만. 기동이 이겼다~. 엄마 잠깐 좀.....

약간 넋이 나간 듯 자리를 뜨는 정남. 판을 정리하는 착한 기동. 그 옆에서 널부러진 현수.
'애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며 괜히 시비 건다. 그러거나 말거나 들어가 버리는 정남.
정남과 기동을 번갈아 힐끗거리는 현수. 기동과 눈이 마주친다.

[Cut To – 약간의 시간 경과]

기동과 고스톱 판을 벌인 현수. 훈칠한 어른과 꼬마가 마주 앉은 안 어울리는 그림.
고스톱 보다는 기동에게 뭔가 궁금한 것이 있었던 현수.

현수오늘 얘들이 뭐라고 안 해?
기동 ?
현수 웃 예쁜 거 입고 왔다고 친구들이 좋아해?
기동 네.
현수 (으쓱) 누가 물어보면 진~짜 비싼 거라고 해. 알았지?
기동 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것이 있었던 현수.
기동은 꼬물꼬물 화투장을 맞추느라 바쁘다.

현수 (슬쩍) 사람들이 나 누구냐고 안 물어봐?
기동 아니요.
현수 물어보면 저번처럼 외웠던 대로 얘기 잘 해.
기동 네.
현수진짜 안 물어봐? 나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기동 ?
현수 물어 볼 텐데? 너 TV 광고에서 나 봤잖아? 나 인기 되게 많아.
기동 쌌어요.

판을 보면 어느새 기동이 이긴 상황.
꽤를 섞는 녀석을 '어쭈~' 하는 눈으로 보는 현수. 아직까지는 여유 있다.

현수 어디서 좀 놀았나?

[Cut To - 시간 경과]

'피박에 쌍박에 흔들고~'를 천진난만하게도 외치며 판을 썩쓸이하는 기동.
그러면서도 순진한 눈빛은 잊지 않는다.
좀 전의 여유로움은 온데간데없고 극도로 짜증난 현수.
이 때 어린이들이 그려하듯 갑자기 소변이 밀려온 기동.
어우~. 급히 화장실로 달려간다.

현수 (짜증) 아 왜?
기동 (O.S) 오줌이요.
현수 내가 섞어? 섞는다?
기동 (O.S) 네~!
현수 조준 잘해!

화투를 섞다가 슬쩍 기동을 살피며 패를 하나 숨기는 치사한 어른 현수.
물 내리는 소리에 표정 관리한다. 멋진 외모와 구린 행동의 이상한 앙상블.

[Jump Cut]

어느덧 판이 커져 버린 분위기. 액면은 막상막하의 패로 펼쳐져 있다.
누구 하나 실수하면 독박을 써 버릴 분위기.
여유 있는 기동과 달리 긴장한 모습의 현수.
마치 '정전자'나 '타짜'에서 마지막 승부와 같은 긴장감 있는 화면 구성이다.
현수의 차례. 비장의 수를 쓰려는 듯 기동의 시선을 돌린다.

현수 (뒤를 가리키며) 저기!!!!!!!

휙 돌아보는 기동. 이 때, 잽싸게 숨겨 놓았던 패를 꺼내고 치려는 순간.....
다시 돌아보는 기동과 눈이 딱 마주치는 현수.
긴장한 탓에 손에 숨겨 놓았던 패까지 떨어뜨린다.
제대로 망신의 순간. 얼음이 되는 현수.

잠시 정적 상태의 두 사람. 이런 현수를 보면 상황 파악을 한 듯 '씨익~~' 쪽소리를 날리는 기동.
아이, 그것도 6살짜리 꼬마에게 비웃음을 당한 현수.
기껏 상황을 모면한다는 것이 판을 엎어 버린다.

현수 (버럭) 어린놈이 어디서 못돼먹은 거나 배워 가지고... 나 안 해~!!!

화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현수.
누가 애 인지.....

48. 어린이 집 – 오후

원장실. 약간은 불안한 느낌으로 조모를 기다리는 현수.
조모 들어오고 살짝 긴장한다.
뭐 할 말 없냐는 듯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에 팬히 찔리는 현수.

조모 (대뜸) 진작 얘기 하시지.

현수 (뜨끔)네?...

조모

현수(혹시).....

조모기동이 잘 치는 거.

현수 (설마)....

조모 모르셨어요?

현수여기서 화투 쳤어요?

조모 (뭔 소리냐)

이 때 들리는 노크 소리.

배꼽 인사하며 들어오는 기동, 긴장하는 현수.

조모 기동아 아까 그거 삼촌 보여드려.

말없이 구석에 있는 피아노로 다가가는 기동. 주섬주섬 자리에 앉는다.
높이가 안 맞는지 책도 쌓아 놓고... 뭐 하는 건가 궁금한 표정의 현수.
이내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기동, 다소 뽕짝 필의 음악.
거칠긴 하지만 여섯 살 아이의 연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경쾌한,
차라리 재즈에 가까운 느낌의 연주. 누가 봐도 신동이다. 놀라는 현수.

49. 동네 가로수 길 – 오후

나란히 걸어가는 현수와 기동의 뒷모습.
훤칠한 어른과 꼬마가 걸어가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지만 어딘가 닮은 두 사람.
녀석이 신통한지 팬히 쳐다보는 현수.

현수 좀 칩디다?

기동 ?

현수피아노는 언제 배웠는데?

기동 어릴 때요.

현수 (피식) 어디서 배웠는데?

기동 천사원에서 배웠는데?

현수 (뭔 소리냐) 학원 땡겼어?

기동?.....
현수저기. 됐고. 그..... 원장 선생님 있잖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선..... 원장 선생님 남자 친구 있어?
기동 몰라요.
현수 그럼 이렇게.... 할까? 니가 앞으로 선생님네 집에 들락거릴 거잖아?
피아노 배우러 왔다갔다. 그러면서..... (머뭇)..... 알아봐 줄 수 있겠니?

현수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이들 앞으로 지나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아이들을 부려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기동. 현수를 보며 사달라는 듯 애절한 눈빛 공격.

현수(난감) 너 발이 몇인데?

50. 현수의 집 – 저녁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거실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기동.
모처럼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이런 녀석에게 열심히 미션을 전달하는 현수.

현수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절대 내가 시켜서 했다는 티가 나면 안 돼요.
요새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 없다면 만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머쓱)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짜증) 아 좀 가만 좀 있지?!

집안을 뱅뱅 도는 기동. 기동을 따라다니는 로봇 청소기.

51. Montage – 정보원 기동

[조모의 집]

조모 옆에 앉아서 피아노를 배우는 기동.

조모 좀 쉴까?
기동 선생님.
조모 ?

[현수의 방]

기동에게 무언가를 전해들은 현수. 반가워 한다.

현수 없어? 그렇지! 이야~ 그럼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할까?

[어린이집 / 조모의 집]

하루 종일 조모의 뒤를 밟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기동.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

[현수의 집]

거실에 둘러앉은 세 사람.
TV를 보고 있다가 정남이 자리를 비우면 얼른 기동 옆에 앉는 현수.
슬쩍 주위를 살피고 현수의 귀에 속삭이는 기동.

현수 (싫다는 듯) 생선까스에 후추? 소스 없이 후추만? 식성 참. 하여간 그래서?.....

얘기를 멈추는 기동.
TV에서 나오는 로봇 완구 선전. 애절하게 바라는 눈빛.

[동 - 다음날]

그 로봇 장난감을 손에 들고 현수의 귀에 속닥거리는 기동.
열심히 듣는 현수.

현수 뮤지 뭐?.... 뮤지컬? 뮤지컬을 좋아해? 이야~. 또?

이 때 정남 지나가면 떤 청 부리는 두 사람.
어느덧 환상의 콤비.

52. 주점 -저녁

로바다야키성 주점, 그리 고급스럽지는 않다. 상운과 마주 앉아 있는 정남.
상운은 예전과 달리 좀 풀어진, 취한 듯 한 모습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열혈 설명하는 상운. 과장스럽다.
그가 하는 말 보다 그의 모습에 집중하는 정남. 묘한 감정을 느끼는 듯.

상운 원래 전무나 이사급인데 (명함 내밀며) 실무를 해야 되니깐 명함엔 그냥 실장.
정남 (피식) 성공했네요.
상운 (피식) 성공은 뭘. 4개월만 있어.(속삭이듯) B.M.W 탄다.

혼자 좋다고 웃는 상운.
어딘가 반 사기꾼 느낌, 혹은 사회에 찌든 느낌이다.
이 때, 상운에게 걸려오는 전화. '자기야~ 전화 받아' 류의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 쓰는 벨 소리.

발신자를 확인하고 정남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아 여자인 듯, 받지 않는다.

정남 안 받아요?
상윤 ...어.....(피식) 알람.

상윤의 취한 시선으로 보이는 정남. 섹시한 모습. 시선 의식하는 정남.

정남 왜요?
상윤 (흐흡 바꾸며) 그 때 말이다.
정남 ?
상윤 너 고 1때. 나 고향에서 공익 할 때.
정남
상윤 그거. 실수! 불장난! 이런 거 아니었다. 나 정말 너 좋아했다.
 사랑했고. 그래서 너 고등학생, 나 군인! 나 용기 많이 냈었다.
정남
상윤 그런데 이제 (음흉)미성년자도 아니고. 다시....만나서 반갑네. 하하....

정남에게 수작 거는 상윤.

이런 상윤을 너무나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정남.
술 한 잔을 쓰게도 들이키는 상윤. 오만상을 쓰고 안주에 손을 댄다.
이런 와중 양파를 잘도 콜라내면 이런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정남.

정남 만약에요.
상윤 어.
정남
상윤 밀해.
정남 우리 옛날에 그랬을 때.
상윤 ?
정남 (휴우~) 같이...잤을 때....
상윤 (옳지) 옳~?
정남 우리 그랬을 때..... 애가 생겨서, 남자 애가.
 그래서 지금 내가 기르고 있다면 어떡할래요?

음흉한 표정 그대로 정남을 쳐다보던 상윤. 이내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한다.
그런데 정남의 표정 바뀌지 않자 서서히 웃음이 가시기 시작하는 상윤.
너무나 진지한 정남의 표정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기겁하는 표정까지 나온다.
한참을 서로 쳐다보던 두 사람.

갑자기 장난이었다는 듯 웃는 정남.
계속해서 웃는 정남을 보고 그때서야 안도의 웃음을 터뜨리는 상윤.
'너무 짓궂다', '여전히 순진하다'는 대사를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별주라며 정남에게 술을 먹이는 상윤. 이 때 울리는 전화벨. 웃으며 전화 받는 정남.

53. 현수의 집 – 저녁

현수 신~났구만. 신났어.

집에서 홀로 이상한 자세로 뒹굴거리며 전화하는 현수.

현수 (횡설) 아 밥만 있으면 뭐 하냐고? ...오늘 갈치조림 한다고....

(수설) 아니 내가 반찬투정이 아니고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아 몰라. 끊어.

전화를 끊고 나뒹구는 현수.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Jump Cut – 양수의 동물 병원]

출산하는 강아지를 불잡고 바빠 보이는 양수.

양수 지금 수술 있어서 못 나.....온다! 나온다! (똑)

[Jump Cut – 가라오케]

어느 가라오케, 스텝들과 모여서 술자리를 갖는 PD.

현수의 전화임에 모두들 침묵하고 있다.

약간 왕따 당하는 분위기의 현수.

PD 오늘 장모님 오셔서 좀..... 아니요. 지금 집인데요....

이 때 리모컨을 만지던 AD.

실수로 뭔가 건드리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팡파레. 우왕좌왕 난리 난 실내.

다 같이 노려보면 병신같이 웃는 AD.

[Jump Cut – CF 촬영장]

한창 촬영 중인 CF 감독. 전화벨 울리자

감독 (속삭이듯) 촬영 중입니다....(똑) 자 레디!! 액션!!

[Jump Cut – 현수의 집]

부엌에서 잔뜩 인상을 구긴 채 밥을 비며 먹는 현수.

그러면서도 핸드폰은 힐끔힐끔 쳐다본다.

한입 가득 밥을 밀어 넣는 와중 울리는 전화.

발신자 ‘조모’ 입안 가득한 음식을 애써 삼키며 누가 보지도 않는데 자세를 가다듬는다.

현수 (태연) 여보세요?..... 저녁이요?..... (반가운, 그러나 태연하게) 먹어야죠.

현수의 시선으로 보이는 비빔밥. 한 숟갈 정도 남았다.

54. 조모의 집 앞 – 저녁

문 열리면 보이는 현수. 좀 전의 잠옷 차림과는 상반되게 꽉 빼입었다.

조모와 기동이 나오자 여유로운 연기, 어색하다.

현수 진짜 가깝네요. 걸어서 오 분.

조모 삼촌이 저녁 사준다고 그랬다고.

현수 어. 그래. 배고프네(끄윽).....

기동 (칭얼) 졸려요. 할머니랑 있을래요.

현수 누구 할머니?

조모 집에 엄마 오셔서.

기동을 보면 졸린 연기, 알아서 빠져 준다는 듯 묘한 눈치를 준다.

녀석이 너무너무너무 기특한 현수.

55. 통기타 라이브 카페 – 저녁

작고 낡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정겹게 느껴지는 통기타 라이브 카페.

벽에는 즐비한 폴라로이드 사진과 낙서들, 80년대 LP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중앙의 작은 무대엔 통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가수가 있고 그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는 테이블들. 마주 앉아 주문을 하려는 두 사람.

현수, 조모를 살짝 쳐다보더니 서둘러 먼저 주문을 한다.

현수 (능숙) 저는 생선가스로. 근데, 튀김가루를 살짝만 입혀주시고 소스는 주지 마세요.
바싹 익혀서. 타기 바로 직전까지.

주문하는 현수를 쳐다보는 조모. 웨이터가 물자 자신도 똑같이 해 달라며 주문한다.

웨이터 가고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는 현수. 묘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는 조모.

현수 저랑 입맛이 비슷하신가봐요? 혼한 취향 아닌데. 아 하하하.....

[시간 경과 -DISSOLVE]

주문한 음식 나와 있고 생선가스에 열심히 후추 뿌리는 현수.

조모에게도 뿌려주며 살짝 호들갑스럽다.

현수 (우연인 듯) 이야~. 어떻게 후추만 뿐만 먹는 거 까지 똑같나?
(아 맞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뮤지컬 보러 가실래요? 표 두장 있는데.
뮤지컬 좋아 하시나? 제가 뮤지컬이라면 또 환장을 해서.

뻔히 보며 웃는 조모.
웃음 뒤에서 느껴지는 묘한 여유로움.
저녁을 먹은 관계로 현수는 거의 먹지 못하고 있다.

조모 왜 그렇게 못 드세요?
현수 (살짝 당황) 네? 아하..... 아껴먹느라고.....
조모 기동이가 나 잘 먹는 남자 좋아한다고는 안 했나보네?
현수 (허걱)!!
조모 정보 수집을 잘 하셨어야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젠장. 쪽팔린 상황에 어쩔 줄 모르고 애꿎은 돈가스에 후추만 뿐만 대는 현수.
뚜껑 빼지면서 범벅이 되고, 급히 닦아내고, 재채기 하고.....바보 같다.

조모 (힌트 주듯) 노래는 이제 안 하시나봐요?

보라는 듯 무대를 바라보는 조모.
현수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서 보면, 무대 위에서 기타 연주를 하며 노래하는 가수.

[시간경과]

어색하게 무대에 올라가는 현수.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어색하게도 앉아 기타를 잡고 마이크 테스트를 한다.

현수 (어색) 사실 제가 2집 망하고 노래 끊은 지 좀 됐는데....
제 노래 할 거 아니니까 안심 하시구요.....

환호하는 사람들. 정말 간만에 하는 노래인 듯 긴장하는 모습의 현수.
조모 한 번 쳐다보며 호흡을 고른다. 기타 줄을 튕기는 현수.
잘 기억이 나질 않는지 몇 번 실패를 하더니 다시 감을 잡고 연주를 시작한다.
이치현의 ‘당신만이’ 예전에 정남이 그러했듯 좀 독특한 리듬감으로 시작되는 연주와 노래.

정남의 노래만큼 화려한 가창력은 아니지만 어쿠스틱한 음색이 좌중을 휘어잡기 충분하다.
그동안과 달리 로맨틱한 모습의 현수.
영화의 주인공이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노래가 고조될 무렵 ‘다 함께!!’를 외치면 신나서 따라하는 사람들.
즉석 콘서트 장이 된 통기타 카페.
서로 눈이 마주치는 현수와 조모.

56. 조모의 집 앞 - 밤

흔히 잡든 기동을 조모로부터 건네받는 현수.

조모 처음에 하도 까칠하셔서. 연예인은 다 그런가...
현수 아~. 그거 제가.... 좀 순수해서..... 어우~. 연예인들 안 그래요.
조모 왜 음반 다시 안 내요?
현수 (파식) 왜요? 한 장 사주시게요?
조모 (사뭇 진지) 현수씨 진짜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팬클럽도 하고. 부회장.
현수
조모 다시 만들까 하는데...
 앞으로 노래 자주 해 줄거죠?

화사하게 미소 날리고 들어가는 조모. 몽롱한 현수.

57. 길 - 밤

기동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애를 안아 본 적이 없는 관계로 여러 차례 자세를 바꾸는 현수.
결국 푸대자루 걸치듯 안고 간다. 짐짝 같은 느낌의 기동.
잔뜩 조모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론은 좋다는 듯 얼굴에 화색이 도는 현수.
기동을 안고 걸어가면 곧바로 동선 엇갈리며 Frame in 하는 한 쌍의 남녀.
정남과 상윤이다. 거의 만취 상태의 상윤. 정남도 기분 좋게 취한 듯 보인다.

상윤 집 앞까지 테려다 준다니깐.
정남 내가 테려다 준다니깐.
상윤 딱 한잔. 진짜 더 안 해?
정남 나중에. 나중에. 저기 택시 오네. 택시!

택시를 잡으려는 정남. 빼진 상윤.

상윤 됐다. 들어가라. 가고.... 아니 난.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아니다. 나 갈께. 전화할게. 내가.

빼져서 돌아가는 상윤, 정남이 뭐라 할 틈도 없이 저 멀리 가 버린다.
상윤 멀어지면 표정 바뀌며 잠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묘한 정남.
허탈한 표정으로 그녀도 그냥 간다.

[Cut To]

털레털레 걸어가는 상윤. 여전히 아쉬운,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오는 묵직한 재활용품 그물.

와장창창!!! 요란한 소리를 내며 상윤을 덮친다. 바닥에 온통 나뒹구는 지저분한 캔들.
짜증스레 이게 뭔가 뒤돌아보면 인기척 없는 길거리.
수풀 뒤에서 힘겹게 숨어 있는 현수. 자기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듯 놀란 얼굴이다.
세상모르고 자고 있는 기동이 무겁기만 하다.

58. 현수의 집 – 밤

오디오며 음반들이 놓여 져 있는 곳에 홀로 앉아 기타를 치고 있는 정남.
상윤의 일로 인한 여운이 남은 듯 생각 복잡한 얼굴이다.
괜히 격하게 기타 줄을 텡기는 정남. 이 때 슬그머니 나타나는 현수.
연주를 멈추고 괜히 딴청부리는 정남.

정남안 칠게요.
현수(딴청) 누구야? 지금 털털한놈.
정남 봤어요?
현수 이 시간에 한 잔 더 하자는 건 한잔 더 하자는게 아니야.
정남 (씨익)....
현수 아니 웃는게 아니라. 얘 이거 봐. 이거.
딱 한잔이 그게 뭔 소리냐면....(에이~) 아니다. 됐다.
정남
현수 (괜히 딴청) 그 연말에 왕중왕전. 그 때 뭔 노래 할건데?
정남뭐 할까요?
현수 (딴청) 내 1집 중에 괜찮은 거 있는데....
정남 (무시) 생각해 놓은 거 있긴 한데....

짜증나는 현수. 슬그머니 기타를 들고 연주를 시작하는 정남.
위 통기타 카페에서 현수가 불렀던 '당신만이'.
자연스런 허밍 하며, 잔잔하게 시작하는 도입부이지만 연계 들어도 죽이는 정남의 목소리.
누가 봐도 감탄하고 청찬할 타이밍이지만 빤히 쳐다보는 현수의 시선에 노래를 멈추는 정남.

정남 왜요?
현수 그렇게 한다고?
정남 이상해요?
현수 (괜히 시비) 왕중왕전이 장난이야? 무대가 얼마나 큰데.
(기타) 쥐봐. 처음엔 잔잔하게 나가는 건 맞아. 맞는데.
기왕 하는 거 악 소리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뒤에 코러스도 한 백명 깔고. 봐봐.

그리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가르치는 현수. 경청하다, 티격태격하다, 기타를 뺏었다, 뺏겼다.....
좀 어설프긴 하지만 하나의 가족 같은 이들. 이들 곁으로 어김없이 지나가는 몽유병 기동.

59. Montage – 행복한 삼대

[라디오 방송국 – 오후]

기분 좋게 방송 진행을 하는 현수. 3씬 때와 마찬가지로 능수능란하면서 활기가 넘친다.

현수 행복이란게 별 거 아닌 거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학교 안 갔는데 휴강됐을 때, 버스 단말기 고장 나서 공짜로 탈 때,
 하다못해 너구리에서 다시마 두개 나와도 행복하거든요.
 저는 오늘..... 웬지 모르겠는데 행복하네요.

점점 커지는 음악 이어지고...

[검정고시 시험장 앞 – 오후]

시험장 앞. 시험이 끝난 듯 ‘제 00회 대입검정고시’ 현수막이 내려지고 줄지어 나오는 사람들.
그 중 아주 밝은 얼굴로 나오는 정남. 행복해 보인다.

[현수의 집 건물 앞 – 오후]

어린이 집 차에서 내리는 기동. 선생님께 공손히도 인사한다.
인기 좋은 어린이가 된 듯 기동을 향해 호들갑스럽게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아이들.
기동도 그들을 향해 밝게 인사하고 집을 향해 뛰어간다.
어느덧 이곳 생활에 익숙해진, 여느 보통 어린이와 다름없는 행복한 하굣길의 기동.

60. 방송국 앞– 늦은 오후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나오는 현수.
이 때 뒤에서 그를 부르는 정남. 기동의 모습도 보인다.

정남 (O.S) 외삼촌!

휙 돌아보는 현수. 팬히 투덜거리는 표정이다.

정남 아 밖에선 외삼촌이라네요?
현수 (흉내) 아 누가 소리까지 지르랬어?
 (귀찮은 듯) 밥은 그냥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 뭐, 누구 생일이야?
기동 엄마 생일인데?

아차! 싶은 현수. 뭐 별로 섭섭하지도 않다는 표정의 정남.

그 얼굴에 더 미안해지는 현수. 괜히 자기가 투덜거린다.

현수 (투덜) 아~거, 생일이면 미리 얘길 하던가. 괜히 사람 참 뭐 하게.....
사람이 말을 해야.... 니 엄마 왜 저런 테니?
뭐 먹고 싶은데? 일단 저기.... 가자고.

괜히 횡설수설하고 자리를 뜨는 현수.
쪼르르 따라가는 정남과 기동.

이들이 떠난 자리, 전부터 화면 옆에 엑스트라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 몸을 돌려 얼굴이 드러나면 봉필주 기자다. 이들의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던 것. 뭘가 냄새를 맡았다는 표정의 봉 기자.

61. 패밀리 레스토랑 – 저녁

고등학생 정도 되는 딸의 생일축하 이벤트를 요란스레 열어주는 한 테이블.
이곳을 지나 보여 지는 현수네 테이블. 조용한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이다.
괜히 찔리는 마음에 건너편 생일 테이블을 헐끗거리는 현수.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의 정남. 그러나 은근히 눈치 보는 현수.

현수	너도 저거 해 줘?
정남	(뭘? 아~) 뭘 해요.
현수	하고 싶으면 얘기 해 나중에 또 뭐라 그러지 말고.
정남	다음 주에 해요. 다음주. (슬쩍 보며) 아빠 생일날.
현수	?

약간 놀라는 현수. 어떻게 알았느냐는 표정이다.

정남 엄마가 그러더만 딱 일주일 차이 난다고

괜히 미안해지는 현수. 오늘 참.....
옆에서 칼과 포크를 총 동워해 자신의 음식에서 양파만 끌라내기에 여념이 없는 기동.

절날 엄마가 양파도 다 먹으랬지

싫은 표정 가득한 기동. 슬쩍 현수에게 도움을 바라는 눈치의 정남. 가뜩이나 전남에게 미안해던 현수

현수 어허. 그거 양파가 정력에도 좋고....(이건 아니지).....
다 작 면어야 그래야 (마땅히 학 말 읽는) 태권보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현수. 잠시 현수와 정남을 쳐다보던 기동.
마치 세상은 결국 나 혼자라는 듯 길게 한숨을 쉬고 억지로 양파를 먹는다.
이런 녀석의 모습을 보고 웃는 정남. 현수도 자기가 뭔가 잘했다고 느끼는지 어색하게 웃는다.
이 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초등학교 남학생 두 명. 손에는 팬과 종이를 가져왔다.

초딩 저기요.

현수 ?

초딩 사인이요.

'아~ 자식들', 팬히 성가시다는 듯 사인을 해 주려는 현수.

초딩 아닌데? 누난데?

어라? 당황하는 현수. 정남도 얼떨떨하다.

현수 저 누나한테 사인을 왜 받아?

초딩 맞는데? (정남에게) 맞잖아요. UCC 나오는 노래 열라 죽이는 누나.

노래까지 흉내 내며 정남임을 확인하는 어수선한 초딩들.

어색하지만 녀석들의 재촉에 사인을 해 주는 정남.

'옹암 초등학교 몸짱 00에게'라고 써 달라는 뚱보 녀석. 주문사항도 많다.

'누나 열라 유명하다', '모르는 사람 없다'는 녀석들의 말이 신경 쓰이는 현수.

그와 달리 노래로 자신이 인정받음에 기분 좋은 정남. 천진한 소녀의 느낌.

62. 라디오 방송국 – 오후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현수.

현수 어이. 연말 결선 때 E.N.G랑 장비들 쏟다며?

PD (딴청) 네? 아.....뭐.....하겠다고...

현수 걔들이 웬일이래? 니가 부탁했니?

AD 아니 제인 있잖아요. 황제인. 걔 나온다니깐? UCC에서 완전 떴잖아요.

(눈치 없이 신난) 내가 걔 된다고 저번부터.....

그만 하라는 듯 눈치를 주는 PD. 애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끼는 현수.

현수 왜?

PD 네?

현수 왜 말을 막냐고?

PD (머뭇) 아니 막는 게 아니고.....

현수 막는 게 맞구만.

PD (조심스레) 저기..... 선배. 혹시 제인이 밖에서 따로..... 만나세요?

현수 (헉) 엉??!

PD (난감) 아니.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현수 (당황) 누가? 누가 그래?

PD 아니 그냥.....(에라 모르겠다) 아, 저기 아까..... 봉 기자 있잖아요. 봉필주이.

개 지나가다 물어보더라고. 선배랑 제인이랑 방송 없는 날 만나던데..... 뭘 사이냐고.

현수 (젠장)또?

PD 또 뭐..... 뭐래더라? 서로 막 애정을 느끼고..... 흐트러지고 싶고?

현수 (버럭) 내가 뭘 흐트러지길?!?! 딸 뺏인 애랑! (진정)....또?

PD (머뭇)....뭐....또....(딴청) 같이 동거라도....하는 거 아니냐.....

잔뜩 인상 구기는 현수. 현수의 다음 반응이 두려운 PD.

현수 봉. 이 새끼 어딨어? 근처 있지?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듯 나가는 현수.

그 와중에서도 복화술로 뒷담화 날리는 두 사람.

PD 저 씹탱이는 맨날 나만 갖고 지랄이야. 언제 확 한번 그냥.

AD 오~ PD님. 이제 입술 안 움직여요.

PD(씨익) 잘 하지?

63. 방송국 복도 – 오후

잔뜩 열 받아 복도를 지나는 현수.

괜히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듯, 수근 거리는 듯 느낀다. 괜히.

그러던 중 저 멀리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는 봉 기자를 발견. 흠칫 하며 몸을 숨긴다.

좀 전에는 그렇게 세계 나가더니.....

현수의 시선으로 보이는 봉 기자. 마치 자신에 대해 캐묻는 것 같다.

64. 현수 집 인근 놀이터 – 저녁 (석양)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저녁. 가족 단위로 놀이터에 나와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놀고 있던 기동.

정남이 몇 명의 여중생들에게 둘러싸여 싸인 해주는 모습을 놀다 말고 지켜보고 있다.

이젠 이름까지 물으며 사인을 날리는 제법 익숙해진 모습.

정남 (슬쩍) 언니 진짜 가수해도 되겠어?

'당연히 해도 된다', '벌써 가수다'라며 호들갑을 떠는 여중생들.
기동과 눈이 마주치면 '엄마 이정도야'라는 듯 V자를 그려 보인다. 해맑게 웃는 기동.
수다스럽게 인사하고 사라지는 여중생들. 어느 때 보다 기분 좋아 보이는 정남.
정남도 기동도 놀이터에 나와 있는 여느 가족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인다.
이 때 울리는 전화.

정남 여보세요?
소리 네. 안녕하세요? 황제인씨죠?
정남 그런데요?
소리 예. 안녕하세요. 여기 홀트 아동 복지원데요?
정남 (당황).....
소리 황제인씨 넉 달 전에 입양 상담 하셨잖아요. 황기동 어린이. 여보세요?
정남 입양 안해요.
소리 아니 그게 아니고. 마침 6살 아이 원하는 부부가... 자리가 너무 좋아서.
 오스트리아고 피아노 교수. 원래 5살 넘으면 저희가 잘 안하는데.....
정남 안 한다니깐!!!

전화를 끊어버리는 정남. 그녀의 큰 소리에 돌아보는 사람들.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한 정남. 살짝 놀라 눈치 보는 기동과 눈이 마주친다.

65. 현수의 집 – 밤

집으로 들어오는 심각한 표정의 현수. 태연한 척 현수를 맞는 정남.
그러나 상당히 어색한 느낌. 정남을 쳐다보는 현수.

[Cut To – 거실]

마주 앉은 두 사람. 냉랭함이 감도는 분위기. 어렵게 말을 꺼내는 현수.

현수 저기.... 그 공개방송 나가는 거 말이지.
정남 네.
현수 니가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얼굴 알려지니까.....
 (골치 아픈 듯) 저번에 옆 집 아줌마도 누구 색시 들었냐고 그러고....
 방송국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
정남
현수 (난감) 거 계속 얼굴 더 알려지고 그러면....여기서 같이 지내는 것도 힘들고.....

고개 숙이고 있던 정남. 갑자기 피식 웃더니 이내 깔깔 거리며 호들갑스레 웃는다.
'애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아나?', 기분 나빠진 현수.

정남 아~ 난 또 뭐. 거기 이제 그만 나갈거예요.
현수(어라).....
정남 말한다고 계속 깜빡했네. 그거 옛날에? 기동이 피아노 타 준다고.
상품 피아노잖아요. 지금 여기서 잘 배우는데, 이제 안 나가도 되지.
현수
정남 왜요?
현수 노래하고 싶다며?
정남 노래는? 사람이 기술을 배워야지.
아~ 옆집. 일부러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다니는데?
조심해야겠네. (일어서며) 나 화장실 먼저 써요.

좀 얼떨떨한 현수.

66. 동. 화장실 – 밤

고요한 가운데 오직 세수만 하는 정남.
한참을 그러다가 멈춘다. 계속해서 틀어 놓은 물. 혹시 우는 건 아닌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실망감, 허탈감.

67. 현수의 집 부엌 – 오전

선행 되는 기동의 재채기 소리. 또 밥풀을 뒤집어 쓴 현수의 얼굴.
기동 역시 밥풀 범벅. 약간은 웃긴 그림. 전 같았으면 웃고 있었을 정남.
가만히 상황을 주시하더니 기동에게 소리를 지른다.

정남 (벼락) 너 엄마가 재채기 할 때는 입 막으랬지!

놀라는 현수와 기동.
처음으로 기동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남.

정남 너 바보야?!! 몇 번 얘기해?!! 할아버지한테 저게 뭐야?!!!
(기동을 쫓아내듯) 너 밥 먹지 마. 절로 가서 손들고 있어.

울먹울먹하는 기동.

정남 뭘 잘했다고 울라고 그래?!! 저리 가! 뚝 하고!!!

울음 폭발 직전의 기동. 어깨만 호느끼며 식탁을 떠난다. 불쌍한 녀석.
처음 보는 정남의 이런 모습에 의아한 현수.

현수에게 팬찮냐며 밥풀을 치우기 바쁜 정남.
슬쩍, 거실에서 홀쩍이는 기동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본다.

68. 어린이 집 – 오후

밝은 햇살이 따스한 오후의 어린이 집. 급식 시간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식판 하나 들고 줄 서 있는 기동. 이런 녀석의 모습을 교실 밖에서 지켜보는 정남. 녀석을 더 잘 보려고 기웃거리다가 기동과 눈이 마주친다.

[Cut To - 로비]

조용한 로비에 서 있는 정남과 기동.
기동은 고개를 떨구고 정남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
왠지 어색한 분위기.

기분 풀린 정남.

정남 촛불 백 개 할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러 가자.
우리 얘기 엄마랑 나간다고.

기동도 기분이 풀리고, 손을 잡고 교실로 가는 두 사람.

69. 국장실 - 오후

매우 얄팍한 표정으로 국장과 마주 앉아 있는 협수.

국장 그게 맞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제인인가 개랑 소문 다 났어. 후문 경비 아저씨도 알아.
현수
국장 (타이르듯) 너 2집 자빠지고 한 삼년 추워봐서 알잖냐?
이 바닥, 좋다가도 스텝 꼬이면 한 순간이다.
지금 좋잖아? 시청률 나와, 광고 촬영 짭짤해?
현수 (후~) 죄송합니다.
국장 좀 잘 하자. 개편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치고 올라오는 애들 안 무섭냐?
DJ 철밥통 아니다.

이 때 울리는 현수의 전화. 발신자 확인하더니 죄송하다며 전화 받는다.

현수여보세요?
조모 기동이 엄마라고 와서 데리고 갔네요.
기동이도 엄마 맞다고 해서 보내는 줬다는데....
현수(젠장).....
조모 근데.....그동안 기동이한테 엄마 물어보면.....
현수(미치겠네).....

70. 현수의 집 – 저녁

현관 앞에서 황당한 현수의 얼굴.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소방관들은
신발을 신은 채 돌아다닌다. 밖에서 수군거리는 구경꾼들. 난장판이다.
집 안에 들어서 보면 스프링클러가 터진 듯 온통 젖어있는 세간들.
거실의 목재 티 테이블과 카페트가 새카맣게 타 있다.
급히 드레스룸으로 가보면 그 깔끔하던 옷들이 온통 물에 젖어 늘어져 있다.
다가온 소방관으로부터 듣는 상황 설명.

소방관 크게 번진 테는 없고요. 여기(테이블)서 촛불이 넘어지면서
카페트 타고 연기 올라오니까 쿨러가 바로 터졌네요.
뭔 촛불을 이렇게 많이 피워서.....

가까이서 보니 더 심하게 탄 테이블과 카페트.
생일 케잌을 녹아 문드려져 바닥에 온통 텅굴고 있다. 망연자실한 현수.
잔뜩 젖은 채 부엌에서 놀란 기동을 안고 있는 정남과 눈이 마주친다.
이들과 같이 젖어서 엉망이 된 생일 음식들이 상에는 가득하고..... 현수의 얼굴.

[시간 경과]

소방관들이 모두 가고 한참 집 정리를 하는 현수.

드레스 룸의 그 많은 옷을 힘겹게 거실로 옮긴다.
뒤편에서 현수의 눈치를 보며 걸레질을 하는 정남.
행주 하나 들고 이곳저곳 닦으며 눈치를 보는 기동. 무거운 침묵.

정남 죄송.
현수
정남 제가 할 게 놔두세요.
현수
정남 그거 좀 탔다고 물이 터지나?.....
현수 그냥.
정남?
현수 그냥 조용히.....
정남

다시 드레스 룸으로 들어가 옷을 한 아름 들고 오는 현수.
눈치 보며 오디오를 닦는 기동과 눈이 마주친다. 슬쩍 눈 피하며 열심히 닦는 기동.
이 때 전원 스위치를 건드렸는지 켜지는 오디오. 프롤로그에 나왔던 경쾌한 음악. 볼륨이 크다.

현수 (다가가며) 그거 코드 안 빼놨.....

이 때 갑자기 스파크를 일으키며 터져버리는 오디오.
놀라는 세 사람. 읊먹거리는 기동이 괜찮은지 급히 확인하는 정남.
설상가상, 뭔가 또 잘못 됐는지 전구도 요란스레 깜빡이고, 부엌에 있던 전자 제품도 연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놀라서 점점 더 크게 우는 기동. 다시 한 번 난장판 분위기.
잠시 후, 잠잠해 지자 들고 있던 옷을 집어던지며 폭발하는 현수.

현수 야.....좀.... 니 엄마가 시키디?
자기 인생 망쳤으니까 가서 내 인생 조지라고?
정남
현수 할 만큼 했으니까 좀 가. 신문사 가서 다 까발리건
방송 나가서 마이크 잡고 떠벌리건. 너 가.
니 애새끼 데리고 좀 사라져!
정남 기동이 들어가 있어.
현수 뭘 들어가?! 너도 일로 와!
정남 (버럭) 빨리 안 들어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급히 드레스 룸으로 들어가 버리는 기동.
이제는 정남도 폭발한 상황.

정남 못 가요!
현수 못 가?
정남 나 혼자 기동이 못 키워. 나 여기서 못 가.

현수 못 가? 말 짚다? 못 가?
돈 줄게. 저번에 얘기 했지? 집 얻어 준다고.
정남 내가 꼭 돈 때문에 온 거야?!!
현수 그럼 뭐? 나한테 아빠질 뭐 이런 거 바라고 온 거야?!!
나랑 살아봐서 알잖아. 나 누구 책임지고 가족 만들고 이런 거 못해.
그냥 각자 인생 각자 살던 대로....
(폭발) 좀 꺼지라고!! 결리적거리지 말고!

씩씩거리는 두 사람. 팽팽하다.

정남 10억 내놔요.
현수(씩씩).....
정남 10억 주면 갈게 돈 내놔요!
현수 나~참. 그렇지. 딱 이 타이밍에 본론 나오는 거지. 10억?
그래. 준다 10억. 이거. 이 집 니가 가져. 내가 나갈게.

옷 챙기고 현관으로 나가는 현수.

현수 잘 살고. 우리 이제 안 보는 거다? 응?

나가버리는 현수. 정남의 뒷모습.

71. 양수네 동물 병원 – 밤

셔터 내리고 술 마시는 두 사람.
무슨 이유인지 강아지 한 마리가 연신 깅낑거린다.

양수 사람 안 다쳤으면 됐지 그 기계 좀 터졌다고 에이구~....
현수 (딴청) 나 오늘 니 집에서 잔다.
양수 지랄. 야. 가족이란게 싸우다가도 대강 비비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지.
현수 (딴청) 침대 내 꺼다.
양수 아니 니가 아이들이야? 니미. 그냥 밝혀. 너 별로 인기 없어.
애 하나 있다고 해도 사람들 신경도 안 쓴다니깐?
현수인기 있거든?
양수 (잔소리) 야. 솔직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중요 하냐?
뜬금없이 왔어도 니 새끼가 중요하냐?
아~ 그냥 까. 밝혀버리라니까...
현수 (버럭) 아~ 고 새끼 거. 무지하게 깅낑거리고....
(더욱 깅낑거리는 강아지 보며) 재는 왜 또 아주 이단 콤보로....
야. 재, 가서 수육 떠와. 아주 하게.

72. 양수네 집 – 밤

결국 한 침대에서 자는 현수와 양수.
양수의 다채로운 잡꼬대 쇼에 괴로운 현수.

[Cut To – 부엌]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는 현수.
이 때 스치며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에 깜짝 놀라 냉장고에 머리를 들이 받는다.
짜증스레 토끼를 쳐다보는 현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 멀리 뛰어가는 토끼가 마치 몽유병 기동과 비슷하다.

73. 현수네 집 – 이른 아침

조심스레 문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현수. 놀란다.
언제 물에 젖었냐는 듯 신기하게도 원상 복구된 집안.

자신의 방에 들어가 봐도 뾰송뾰송 말라 있는 침대. 조심스레 드레스 룸 문을 여는 현수.
정남과 기동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전부 말려 제자리에 걸어놓은 옷들.
그러나 녀석들의 짐은 보이지 않는다.

의아해 하며 나가려는 중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는 정남의 메모.

‘10억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신경질적으로 메모를 떼어버리는 현수.
그리고 생각 복잡해진다.
메모가 붙었던 자국은 지우면서.....

74. 라디오 방송국 – 오후

부스에 앉아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는 현수.
그의 모습을 보며 또 뒷담화 날리는 PD와 AD.

PD 이야~. 이젠 아주 감을 못 잡겠다. 감을. 저 정도면 조율중인데.
AD 제가 보니까 첫째 셋째 주는 기분 좋고 둘째 넷째 주는 저러는 거 같더라고.

음악 끝나고 멘트 지시를 하는 PD.
힘없이 다음 사연을 읽어준다.

현수 경기도 일산에서 강민경씨 사연입니다.
6개월 전 유기견 센터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까지 감싸주고자 정성을 다 했죠.
녀석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한 시도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더군요.
근데 이런 녀석의 주인에 대한 애착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잠시 외출하려해도 짓고 난리가 나는 건 기본이고 늦게라도 오는 날에는 집안의
물건이란 물건은 모두 물어 뜯어버리더군요.
녀석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도 못 가고 주민들 민원도 끊이지 않고,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녀석을 데리고 산책 나간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녀석의 목줄을 풀어버렸습니다.
신난 녀석은 어디론가 열심히 뛰어가더군요.
그날 저는 뭐에 홀렸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다시 찾은 그곳에, 녀석의 혼적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후회도 되지만 한 편으로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단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 나쁜 사람인가요?

현수의 멘트 흐르는 동안 겹쳐지는 화면.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가는 정남과 기동의 모습.
어디를 그렇게 찾아가는지 길을 묻고, 버스도 잘못 타서 다시 내리고,
게다가 갑작스런 소나기 까지..... 힘겨워 보이는 두 사람.
사연 속의 유기견도 비를 맞고 지나간다.

멘트가 끝나고 생각에 잠기는 현수.
음악도 없는 정적. 혹시 방송사고가 아닐까 할 즈음

현수 이건 정말 저도 모르겠네요.

현수의 생각지도 못했던 멘트에 당황하는 스텝들.

75. 어느 아파트 단지 – 해질녘

상가 비디오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며 정남의 전화를 받고 있는 상윤.
비디오 가게 안을 살피며 조심스레 통화한다.
상윤 아~. 오늘은 좀 그런데. 아니 야근도 있고.... 내가 이사급이라서....
그래 미안하고. (누군가가 나오자) 회의 시작한다. 이따 전화할게.

급히 전화를 끊고 담배를 버리는 상윤. 비디오 가게에서 나오는 만삭의 임산부.

여자 뺐지?
상윤 아~ 그냥 반 모금 뺐았어.

여자 남들은 임신하면 지극 정성이라는데 맨 날 야근 있다고 술 퍼먹고 땡기고...
돈을 잘 벌어 오길 하나...
상윤 알았어. 알았어. 죄송. 나 진짜 이제 끊는다. 담배.
여자 주딩이를 확 꼬매버려야....

여자의 구박을 받으며 칠칠거리는 상윤.

이런 모습을 저 멀리 숨어 모두 지켜보는 정남. 허탈감에 말을 잇지 못한다.
그녀의 옆에서 알 수 없지만 뭔가 느끼는지 멀어져 가는 상윤 부부를, 특히 상윤을 지켜보는 기동.
산모의 배를 쓰다듬는 상윤을 보며 차마 돌아서는 정남.
크게 소리를 내진 못하지만 쉰 소리를 내며 서럽게 우는 정남.
아무리 꽂꽃하게 살았어도 결국 어린 나이인, 그래서 어깨까지 들썩이며 호느낀다.
눈치 빠른 기동, 기운 내라는 듯 정남의 엉덩이를 두드려 준다.
지는 해의 붉은 빛에 더 쓸쓸해 보이는 이들의 뒷모습.

76. 어린이 집 앞 – 저녁

여두워진 저녁. 어린이 집 앞에선 저녁반 아이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
앞에 나와 아이들과 일일이 인사하는 조모.
버스 떠나고 다시 들어가려다 건너편에 서 있는 현수를 발견한다.

77. 현수 집 인근 거리 – 밤

아까의 슬픈 모습은 없고 애써 씩씩하게 걷고 있는 정남.
엄마의 빠른 발걸음을 쫓느라 기동은 바쁘다.

정남 (애써 밝은) 우린 오늘 가출한 거야. 가출.
내가 어릴 때 가출을 못 해봤거든. 가출 재밌었지?
기동 ?
정남 가출의 묘미는 저녁 때 까지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
너도 나중에 가출하면 저녁 먹기 전까지는 집에 꼭 들어와.

열심히 걸어가는 두 사람.

78. 현수의 집 앞 – 밤

현수의 건물 앞까지 온 현수와 조모. 현수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인다.

현수 데려다 줘서 고맙습니다.

조모 기동이 갑자기 가서 섭섭하시겠어요.
현수
조모 말 하는 거며, 삼촌 많이 닮았는데. 보고 싶죠?
현수
조모 그래서 기운이 없으신가봐? 조카 보고 싶어서.
현수 조카 아니에요.

약간 놀라는 눈치의 조모.

현수 손자예요.

현수를 빤히 바라보던 조모. 풋~, 웃는다.
계속해서 웃는 조모를 보며 같이 웃는 현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기분이 좀 풀린 듯 보인다.

조모 엘리베이터 앞까지 바라다 줄게요.

현수와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조모.
밖의 시선에서는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다.
이런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보던 정남.

좀 전의 씩씩함은 온데간데없고 허탈해지는 모습이다.
힘없이 돌아서서 영문도 모르는 기동을 데리고 사라지는 정남.
사라진다는 표현이 어울리게 떨어져 가는 이들의 모습.

79. Montage – ‘서로의 부재’ & 시간의 경과.

[현수의 집 – 오전]

아침. 다시 냉장고에 붙은 다이어트 식단표.
커피와 샐러드로 아침 식사를 하는 현수.
우적우적 계속해서 그냥 씹기만 하다가 맛없다는 듯 포크를 집어 던진다.

[어느 식당 – 오전]

마주 앉아 라면을 먹는 정남과 기동. 기동은 맛있게도 먹는다.
먹는 동 마는 등 생활 정보지를 보며 여기 저기 표시하는 정남.
'대졸 이상'이라는 구인 광고에 가득 쳐져 있는 X 표시.
식당 라디오에서 나오는 현수의 방송.
상당히 기운 없게 들리는 목소리.

[라디오 방송국 - 오후]

건성으로 선곡 멘트를 날리고 의자에 널브러진 현수.
컨트롤 룸의 PD와 AD. 들리진 않지만 복화술로 뒷담화를 날리고 있음을 이제는 알 수 있다.
AD의 움직이지 않는 입술을 보며 칭찬하는 PD.

[어느 사무실 - 오후]

어느 작은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는 정남. 예전 현수가 사준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했다.
저 멀리 무료하게 앉아 있는 기동.
힐끔힐끔 음흉한 눈빛으로 정남을 쳐다보는 면접관.

면접관 아~ 저희는 고졸이면 되고요.
정남 고졸 아닌데요.
면접관
정남 검정고시 봤는데..... 잘 봤거든요?
면접관 아. 그럼 됐어. 그럼 됐고..... 미혼이시고.....(기동 슬쩍 보며) 조카?
정남 아들인데요.

뜨악! 하는 표정의 면접관.

[현수의 집, 드레스 룸 - 오후]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우편물 중 정남의 검정고시 합격증을 명하게 보고 있는 현수.
현수 주변을 맴돌다 발을 툭 치는 로봇 청소기.
어디서 가져 왔는지 기동의 낡은 뿔테 안경을 가지고 왔다.
마치 '기동인 어디갔냐'고 묻는 듯 한 모습의 청소기.
안경을 집어 들고 한참 생각에 잠기는 현수.

80. 여관방 - 밤

허름한 여관방. 잠이 오지 않는 듯 뒤척이는 정남.
TV를 켜면 마침 나오는 어느 피아니스트의 연주 장면.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기동, 말뚱말뚱한 눈으로 돌아눕는다.
녀석에게 미안한 듯 쓰다듬는 정남.

정남 피아노 나중에 꼭 사줄게. 그랜드 피아노. 대빵 큰 걸로.
기동 할아버지네 안 가?
정남 (단호) 안 가. 다시 우리 둘이 잘 살아야 돼.
기동

정남 할아버지 좋아?
기동 (돌아눕더니) 사람 팬찮더만.

웃는 정남. 여전히 돌아누운 기동. 고민이 있는 뒷모습이다.

기동 나 또 천사원 가?

정색하는 정남.

정남 이제 너 절대 고아원 안 가.

서로 알아준다.

81. 라디오 방송국 – 오후

스튜디오로 들어서는 현수, 좀 어수선한 스튜디오.

흔나는 듯 서 있는 몇 명의 스텝들. PD는 잠뜩 짜증이 나 있다.

현수 ...왜?

AD 아니. 제일 말입니다. 방송이 내일인데 계속 연락도 안 되고...

PD 아니 선배 나 할 말은 좀 해야겠네 아니 뭐 밤송이 혼자 하는 거예요?

시경 졸 써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면 혜택은 선배가 제일 누리면서?

진짜 화가 났는지 평소와 달리 막 나가는 PD.

현수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다.

현수 어 그레 미안하다

기운 없는 혼수 그의 박웅에 좀 미안했는지 꽤히 화제를 돌리는 PD.

그리고, 얘, 황정남이, 얘는 또 왜 사연 안 보내? 아주 이 넌들이 짬어, 짬어.

야 너 저번에 사람 잘 찾는 애 있다고 했지

걔 빨리 역할해서 얘 한 번 수소문 해봐 아니 둘 다 수소문 해봐

줄 알아서들 하란 말이야 나 이 걸레년들 만나서 아주 그냥 쌩

이하 정남에(제인) 대해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PD. 무표정하게 듣고 있던 현수. 족 저에 혁수에게 했던 행동이 미안했는지 그를 보면 동조를 구하는 듯 웃는 PD.

PD (씨-익) 하~. 하 넋은 색기에 하 넋은 미혹모. 나 이~

뭐 누가 말리고 자시고 할 틈도 없이 주먹을 날리는 현수.
난리 난 스튜디오.

82. 오디오 전문점 – 저녁

쇼핑몰 내에 있는 오디오 전문점. 수리를 맡긴 오디오를 찾으려 온 현수.
아까 썼던 주먹이 아픈지 만지작거린다. 오디오 테스트를 해 보이려는 주인.

주인 점검 다 됐구요. 테스트 하실래요?
 여기 테이프 하나 께 있던데?

‘이게 뭐지’ 테이프를 플레이 하는 현수. 마치 잘못 녹음된 테이프의 잡음 같은 소리다.
의아해 하는 현수. 가만 들어보면 정남과 기동의 목소리다.
마이크 테스트에서부터 우당탕거리는 소리는 기본이고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라는 정남의 말에
말 대신 마이크에 배꼽 인사를 한 듯, ‘그렇게 말고 말로 하라’는 어수선한 녹음.
이들의 모습이 상상이 가는 듯 자신도 모르게 웃는 현수.

정남 (소리) 엄마가 먼저 해? 엄마가 먼저 한다?
 (흠흠.....어색) 저기... 아빠. 생일 축하해요. 만수무강하시고.....
 한 살 더 드시니까 짜증 좀 그만 부리시고..... 딸도 좀 이뻐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 어지간하면 같이 오래 사는 게.....
 좋을 거 같은데.....(괜히 어색)기동아 너도 한 마디 해.
기동 (소리)삼...총....
정남 (소리) 여기다간 할아버지라고 해도 돼.
기동 (소리)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어수선한 녀석들의 목소리.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현수.
애써 눈물을 참는다. 당황스런 가게 주인.
대형 스피커를 통해 가게 밖까지 울려 퍼지는 테이프의 소리.

83. 어느 단란주점 – 밤

기름기 넘치는 중년과 마주 앉아 면접을 보고 있는 정남.

중년 내가 거짓말 잘 못하거든.
 딱 1년 고생하면 전셋집 하나 얻고 2년 고생하면, 아파트 하나 산다.
 평수는 20평대. 강남은 힘들고. 응? 그리고 자기 인물은 뭐 나쁘진 않거든?
 않은데 많이 가꿔야겠다. 본인도 인정?
정남 네.....

중년 여기야 말로 정직하게 일 해서 돈 버는 데야. 땀 흘린 만큼, 목쉬는 만큼.
노래 좀 한다고 했나? 하나 해 봐. 난 장윤정꺼 좋은데.

노래방 리모컨을 건네는 중년, 억지로 책을 넘기는 정남.
이 때 밖에서 취객들의 싸우는 소리 들리고 중년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
정말 하기 싫은 얼굴의 정남, 이 때 울리는 메시지 사인.
확인해 보면 현수의 문자. ‘갈치조림에 간장 들어 가냐?’

84. 현수의 집 부엌 / 단란주점 – 밤

울리는 전화. 발신자를 보면 ‘마귀’ 살짝 긴장하는 현수. 애써 태연한 척 전화를 받는다.

현수 어. 그래...
정남 두 숟갈 들어가요.
현수 어.....(한참 후) 밥숟갈?
정남

잠시 끊기는 이들의 대화. 서로 머뭇거리는 두 사람.

현수 내일 어떤 할래?
정남 (알면서) 뭘요?
현수 (살짝 짜증) 아. 그 공개 방송?
정남 왜요?
현수 (괜히 짜증) 아 노래하고 싶다며?

정남의 시선으로 들어오는 노래방 기계.

현수 (버벅) 아. 그 뭐라고 안 할게, 그냥 내일 나와.
정남
현수 나오라고!!
정남 돈은요?
현수 ?....
정남 10억 준비 됐어요?
현수 (발끈) 그만 하지?
정남 돈 아깝죠?
현수 너 진짜 이러기로?
정남 돈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끊어버리는 정남. 밖에선 취객들의 싸움이 더 격해진다.
열 받는 현수. 전화기를 던져버린다. 벽 말고 소파로 방향을 틀어서.....

85. 교회 – 밤

단란주점 건물 위에 있는 영세한 교회.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진다.
들어오는 정남을 맞이하는 목사님. 이곳에 잠시 기동을 맡긴 듯 연신 고맙다는 정남.
기동은 목사 사모님의 지도를 받으며 피아노를 치고 있다.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목사님.

목사 얘기가 신동이네요. 신동. 귀한 선물 받으셨네.

피아노 치는 기동을 지켜보는 정남.

86. 공연장 – 오후

라디오 공개 방송 준비가 한창인 어느 공연장.
무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세팅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는 스텝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현수. 정남을 기다리는 표정이다. 이 때, 슬그머니 다가오는 PD.
전에 맞았던 것 때문인지 얼굴도 좀 명들어 있다. 서로 어색한 두 사람.

PD (어색) ...그 시키신 제인, 코러스들.... 일단 준비는 시켜놨어요.

현수어...그래. 올 거야.

PD(말 없이 돌아선다).....

현수저기 있잖아.

PD (멈칫).....

현수 어제 그..... 미안했다.

PD(울컥) 제가 더 죄송합니다. 선배가 그렇게 청취자 아끼시는 줄도 모르고.....

괜찮다며 어깨 두드리고 급히 뒤돌아서는 현수. 존경스럽다는 듯 인사까지 하는 PD.
그의 시점으로 보이는 현수의 뒷모습. 자신도 감동한 듯 흐느끼며 어깨가 들썩이는 현수.
그러나 돌아선 현수의 얼굴엔 ‘풋!!!!’ 폭발 직전의 웃음을 참고 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하고 놀라는 현수.

무대 뒤에서 언제 왔는지 정남과 기동이 서 있다.

애써 냉담한 표정의 정남. 현수도 반갑지만 애써 표정 감춘다. 참 연기 못 하는 두 사람.

그 옆에 눈치만 보고 있던 기동.

잠시 바라보던 현수가 오라고 손짓하자 손을 꼭 잡은 정남의 눈치를 본다.

슬그머니 손을 놓아주는 정남. 쪼르르 걸어오는 기동.

현수 바로 앞에 딱 서서 빤히 올려다본다.

슬그머니 머리 쓰다듬자 마치 현수 편이라도 되는지 바로 옆에 서서 정남을 바라보는 기동.

정남은 다가오지 않은 채 냉담한 표정 그대로 서 있다.

정남 피아노 타려 온 거예요. 딴 맘 있어서 온 거 아니고.
현수 그 큰 거 어디다 놀라고?

시선 피해버리는 정남. 무안함과 미안함의 현수.

[Cut To - 시간 경과]

한 명의 참가자가 리허설을 끝내고 무대 뒤로 들어간다.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리허설 준비를 하는 정남.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위치를 잡아 주는 진행자.

진행자 자 황제인씨. 거기 중앙이요. 네. 조명 다 꺼 주시고요.
(꺼지는 조명) 자 세션 레디. Q!

간주 먼저 흐르고 슬며시 켜지는 조명. 어느 때 보다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는 제인.
기타를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에 넋을 잃는 사람들. 이치현의 ‘당신만이’
통기타 카페에서 현수가 부르던 곡과는 또 다른 느낌. 한 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다.
무대 뒤 스텝들이며 출연 대기자들도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바쁘다.
무대 아래서 지켜보는 현수와 스텝들. 그 누구보다 정남의 노래에 빠져드는 현수.

AD 하나 마나네, 왕중왕전.
PD 이야~ 죽인다~ (슬쩍 현수와 눈 마주치면) 노래가 아주.... 죽인다..... 노래가.

계속해서 어두운 무대.
이 때 진행 스텝의 지시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100여명의 코러스들.
마치 유명 여가수의 대형 콘서트 같은 느낌이다.
약간 놀라는 눈치의 정남, 현수 쳐다보면 ‘널 위해 준비했다’는 듯 묘한 표정이다.
노래에 도취되어 환상적인 7옥타브를 날리는 정남. 리허설임에도 불구하고 환호하는 사람들.
스텝들도, 출연 대기자들도 자신들의 일을 하다말고 구경하기 바쁘다.
감동 받은 듯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다. 바라보는 현수.

87. 대기실 – 오후

분장 및 대기로 분주한 무대 뒤. 급히 대기실로 들어오는 정남.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기동이 정남을 맞이한다.

정남 엄마 잘 했어?
기동(현수 흥내) 좀 하데?

웃는 정남. 그러다 기동을 안아준다.

정남 엄마가 꼭 피아노 타 줄게. 그랜드 피아노.
기동 (주변 눈치 보더니 콧속말) 할아버지 어딨어?
정남 할아버지 다시 보니까 좋아?

잠시 생각하더니 마치 어른처럼 씨익 웃어 보이는 기동.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남. 이때 그녀를 부르는 메이크업 스텝.

정남 잤다 올게. 이번엔 여기서 좀 기다려.

주위 눈치를 보며 비밀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기동. 조금은 정신없는 정남.
핸드폰을 꺼내 진동으로 바꿔 기동의 가방에 넣는다. 금방 오겠다며 자리를 뜨는 정남.

[약간의 시간 경과]

지루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기동.
지나가는 사람들은 귀엽다며 한 번씩 다 건드리고.....
이 때 현수의 뒷모습을 발견하는 기동, 반가운 마음에 그를 쫓아 대기실 밖으로 나간다.
대기실에서 복잡한 복도를 지나 공연장 뒤편까지 졸래졸래 현수를 쫓아가는 기동.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기억지 차이 때문에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88. 공연장 밖 – 오후

마침내 입장이 시작되는 공연장, 입장하는 사람들로 분주한 입구.
어느덧 현수를 쫓아 공연장 밖 까지 따라 나온 기동.
'할아.....삼촌'을 외치며 거의 따라잡은 기동. 마침내 현수를 붙잡는데....

89. 분장실 앞 – 오후

위의 반응 것으로 장면 전환. 돌아보는 현수.
분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대기 중인 정남을 발견한다.
어색하게도 정남을 불러내는 현수. 애써 냉정한 표정으로 나오는 정남.
잠시 침묵.

현수 잠은 어디서 잤는데?
정남 있어요. 좋은데.
현수 돈도 없는 애가

이 때 몇 명의 스텝 지나가자 금세 딴청 부리는 현수.
이런 현수의 모습이 또 못마땅한 정남.

정남돈 준비 하셨어요?
현수 (약간 열 받는) 진짜 돈 줘?
정남 사고 친 것도 있으니까 1억 깎아드릴게요.
현수

말없이 노려보는 열 받은 현수. 정남은 아차 싶지만 애써 시선 외면한다.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 정남에게 줘어주고 가버리는 현수.

펴 보면 검정고시 합격 통지서. 사라져 버리는 현수의 뒷모습.

90. 공연장 밖 – 오후

기동이 불잡은 남자의 얼굴.
뒷모습만 똑같은 전혀 엉뚱한 사람! 관객도 당황스럽다.
남자는 가 버리고 잠깐 헤매 상태의 기동.
이 때, 입장 진행 요원의 실수로 복잡해진 입구 상황.
엉키고 몰려드는 사람들. 인파 사이에 끼여 버리는 기동.
사람들에게 밀려 공연장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이 와중에 벗겨지고 빠져버리는 돋보기안경.
울지는 않지만 매우 당황스런 기동.

안경을 빠른 기동의 시점으로 보이는 화면은 뿌옇기만 하다.
통통 뛰어가며 급히 대기실을 찾는 기동. 과장되어 들리는 기동의 숨소리.
안타깝게도 대기실 이정표와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뛰어간다. 어느새 주차장까지 나가 버린 기동.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와중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 한다. 위기의 기동.

이 때, 방송국 견학을 온 듯 출지어 이동하는 어린이 무리.
우연히도 기동과 똑같은 노란색 점퍼로 통일한 모습. 등에 메고 있는 가방까지 똑같다.
어린이를 인솔하던 한 교사, 아이들과 약간 떨어져 멀뚱히 서 있는 기동에게 다가간다.
가방에 써져 있는 이름을 보며,

신입 기동아. 황기동.
기동 네!
신입 일루와. (줄을 세우며)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 기다리잖아.

눈이 보이지 않는 기동은 이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인솔자에 의해 버스에까지 탄다.

[Cut To - 버스 안]

버스 안에서 신입인 듯 잔뜩 긴장한 상태로 탑승 인원을 체크하는 어느 인솔자.
이상하다는 듯 다시 체크해 보지만 역시 한 명 많은 인원.

이 때 다가오는 고참. 엄한 선생인 듯 잔뜩 긴장하는 신입 인솔자.

고참 맞아?

신입

고참 (짜증) 맞아 모자라?

신입 한 명 많은 건..... 좋은 겁니까?

고참 (이걸 확) 너 또 저번처럼 너 까지 세서 한 명 많다는 거 아니야, 지금?

노려보는 고참에게 잔뜩 주눅 든 신입. 병신같이 웃는다.

신입 (씨-익) 맞습니다.

고참 (붕-신) 아저씨 출발이요.

문 닫히고 출발하는 버스. 잔뜩 겁먹은 기동의 얼굴.

멀어져 가는 버스에는 ‘부산 00 어린이 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91. 대기실 – 오후

분장을 끝내고 대기실로 돌아온 정남. 자리에 기동이 없음을 발견.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지만 보이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못 봤다는 사람들.

아직도 설마 하는 마음에 복도며 무대며 뒤지지만 보이지 않는 기동.

엄마의 직감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는 정남.

대기실에서 복도, 심지어 남자 화장실까지 뒤지기 시작하는 정남.

어느덧 공연장 밖 입구까지 나가서 찾기 시작한다.

불안한 마음에 미친 듯이 찾는 중 발에 툭 체이는 깨진 안경, 기동이 썼던 돋보기다.

절망하는 정남.

92. 공연장 – 오후

객석도 거의 차고 방송 직전의 무대. 장내에는 방송 시작 1분을 알리는 방송이 나간다.

현수는 무대 위에서 여유롭게 방송 준비에 임한다.

이 때, 마치 미친 여자처럼 울며 무대 위로 올라오는 정남.

진행 요원이 말릴 틈도 없이 현수에게 다가가 울부짖는다.

정남 기동이.... 아버지. 기동이...

현수 (당황) 얘가..... 왜.... 얼른 내려가.

정남 기동이. 우리 기동이 없어졌어! 아버지! 어떡해!!!!

놀라는 현수, 정남 손에 들려 있는 깨진 기동의 안경을 본다.
이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정남의 말에 놀란 듯,
방청객들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에 궁금한 듯 응성거린다.
한 쪽에선 방송 시작 몇 초전임을 알리고 정남은 진행 요원들에게 끌려가고, 울부짖고...

꽤나 상태가 되는 현수. 울부짖으며 발버둥치지만 무대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정남.
이런 모습을 큰 일 났다는 듯 지켜보는 국장과 PD.
이 때, 뒤에서 슬그머니 나타나는 봉 기자.

봉 기자 왜 저런데요?
PD 응? 어... 봉 기자.....
봉 기자 뭐래? 아버지? 아빠라고 그런 거야?
PD 응..... 어, 근데 봉 기자가 여긴 어쩐 일로....
봉 기자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냄새가 나서.....

딜레마에 빠지는 현수.
안 되겠다는 듯 무대 아래로 내려 가려하지만 시작되는 방송 시작 카운트다운.
방송은 시작되고 어정쩡한 자세의 현수, 보이는 라디오인 관계로 방송에 나간 후다.
시작되는 라디오 로고송. 멘트 타이밍을 놓치는 현수, 좌절하는 PD.
'남현수의 정오의 휴식'이란 멘트를 참 어정쩡하게 날리면,
진행 요원들에 의해 방청객들의 박수갈채가 시작된다.
우선 일차 위기는 넘긴 방송. 로고송이 끝날 무렵. 다시 멘트를 날릴 타이밍이다.
그러나 저 멀리 울며 끌려가는 정남을 보고 머뭇거리는 현수, 방송사고의 분위기.
애타는 PD며 스텝들.....

이 때, 자세를 가다듬고 차분히 멘트를 날리는 현수.
기동 보다는 방송을 선택한 듯 능숙하게 준비한 멘트를 날린다.
안도하는 관계자들, 끌려가며 현수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정남.
이런 정남을 힐끗 보지만 멘트는 멈추지 못하는 현수.

이런 와중 그의 발에 부딪쳐서 미끄러지는 무언가.
정남이 떨어뜨리고 간 기동의 안경이다. 멘트는 날리고 있지만 머릿속은 하얗다.
이내 주변 음은 들리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 들리는 이상한 상태가 된다.
곧 멘트도 멈추고 정적이 흐르는 실내.
현수의 시선으로 보이는 정남, PD, 국장, 방청객들.....

현수 (넋 나간).....아이를 찾습니다.....

의아해 하는 사람들. 눈물범벅이 되어 현수를 보는 정남.

현수 이름은 황기동. 6살이고.... 요정도 키에.... 머리는 왕 곱슬.....
돌보기를 끼고.... 눈이 상당히 나쁘고 고스톱을 잘 치는..... 전국에 계신 청취자들...

점점 홍분해서 기동을 찾는 현수. 정남을 양쪽에서 격하게 불잡고 입을 틀어막은 진행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자 가릴 것도 없이 무대 아래로 뛰어 나간다.

현수 야 새끼야! 너 거기 손 안 떼?!!!!!

생방송에서 진행자가 욕까지 한 상황. 절망하는 PD와 국장. 웅성거리는 실내.

무대 아래서 진행 요원들을 밀치고 정남과 합류해 급히 밖으로 나간다.

급히 세션들의 연주로 대체하지만 이미 제대로 벌어진 방송사고.

93. 고속도로 휴게소 – 오후

화장실에 갔던 아이들을 다시 버스에 태우는 ‘부산 어린이집’ 교사들.

이번엔 버스 앞에 고참과 신입이 나란히 서서 같이 숫자를 센다.

마지막 아이를 세고 신입을 노려보는 고참. 역시 병신같이 웃는 신입.

신입 맞네요?

‘으이구 응삼아’ 하며 버스에 타는 고참. 잠시 후, 저 멀리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버스.

이 때 Frame in 하는 기동. 울지는 않지만 당황하는 얼굴.

어디론가 뛰어가는 기동의 뒷모습. 가방은 버스에 놓고 내린 듯 보이지 않는다.

[INSERT – 버스 안]

노래하고 장난치는 아이들로 가득한 버스.

기동의 가방은 버스 좌석 깊숙한 곳에 떨어져 있다.

94. 관할 경찰서 – 밤

어느덧 늦은 밤, 분주한 경찰서 구석 의자에 앉아 있는 현수와 정남.

정남은 망연자실해 울고 있다. 두 사람을 부르는 경찰.

경찰 지금 핸드폰 추적은 대전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는 전원이 꺼져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요. 황제인씨.... (힐끔) 황기동이 엄마 맞아요?

정남 (울먹) 네....

현수

경찰 지금.... 신고 들어온 건 아직 없고요. 수배 내렸으니깐 일단 집에 돌아가 계시면...
여기 계신다고 아를 빨리 찾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정남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안돼요?

경찰 (퉁명) 계신다고 더 찾고, 없다고 안 찾는 거 아니니까 돌아가 계세요.

현수 요샌 앵벌이나 그런 건 없죠?

가뜩이나 불안했던 정남.

앵벌이란 말에 목 놓아 운다. 도와주긴 커녕.....

이 때 이들에게 급히 다가오는 조모. 그녀도 많이 놀란 듯 보인다.

조모 어떻게 됐어요?

현수 아직 소식은 없는데..... 수배 내렸다니깐.....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 서럽게 우는 정남.

조모 기동이 엄마세요?

현수 네....

조모 요새 미아 찾기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웬만하면 다 찾아요.

그리고 기동이 똑똑한 애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올 거예요.

훨씬 제대로 된 위안을 주는 조모.

그러나 정남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럽게 울고 있다.

조모 (현수에게) 여기서 이럴게 아니고 동생분 집으로 모셔가서 안정 좀 시키세요.

이러다 탈진하겠네.

들썩들썩, 서럽게 우는 정남을 힘없이 잠시 쳐다보던 현수.

현수 동생이 아니고 딸이에요.

조모 ?!!

현수 친 딸. 기동이는 손자.

놀라는 조모. 담당 경찰도 놀라는 눈치다.

울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현수를 쳐다보는 정남.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혹은 달관한 듯 한 모습의 현수.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이들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

[Cut To - 약간의 시간 경과]

현수 일행이 나간 듯 조금은 조용한 담당 경찰.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의 뒷모습, 보면 봉 기자다.

봉 기자 (능글) 수고하십니다.

경찰 ?

봉 기자 (신분증 내밀며) 기잔데요.....

95. 현수의 집 – 밤

거실, 늦은 밤 거실에 앉아 전화기를 노려보며 기다리는 두 사람.
기도하는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정남. 거의 탈진 상태다.
혹시 전원이 꺼져 있나 애꿎은 전화기만 계속해서 열어보다 텔썩 소파에 기대는 현수.
완전히 탈진해 보이는 정남을 힐끗 쳐다보더니

현수 (뜬금없이)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가. 촌시럽게.
정남
현수 아빠지.
정남 괜찮겠어요?
현수
정남 사람들... 다 밝혀졌는데....
현수지들이 내 인생 책임진 데디?
정남 ?
현수
정남 내가 가수 돼서.... 봉양할게요..
현수 (피식) 아~ 그거. 무대. 공연 했었어야 됐는데. 하기만 하면 바로....

이 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 반사적으로 전화 받는 현수.
'네... 네. 지금 가요' 전화를 끊는다. 조마조마한 눈으로 쳐다보는 정남.
의외로 침착한 현수. 이제야 어른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현수 찾았데.
정남 !!!!!!

96. 경찰서 – 새벽

경찰서 소파. 뜬 눈으로 밤을 센 두 사람.
밖에서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리나케 나간다.

97. 경찰서 밖 – 새벽

푸르스름한 새벽의 경찰서 주차장. 저만치에서 들어오는 차.
조마조마한 정남과 현수. 차 문 열리고 내리는 기동. 잠에서 막 깼다.

정남 기동아~!!!

훔칫, 엄마 목소리를 들더니 어깨까지 들썩이며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기동.

눈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간다.
역시 오열하며 뛰어가는 정남. 이 때, 정남을 추월해서 기동에게 뛰어가는 현수.
포옹하는 기동과 현수. 멈칫,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정남.
'이놈새끼 사고 쳤다'며 기동의 궁둥이를 때리는 현수.
우는 기동. '왜 애는 때리냐'며 합세하는 정남. 티격태격 어수선한 세 사람.

98. 현수의 집 – 오전

거의 탈진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세 사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파에 널브러진다.
기동은 이미 자고 있고 정남 역시 앉자마자 잠이 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듯 기동의 발을 꼭 잡고 잠든 정남.
잠시 이런 녀석들을 쳐다보더니 이내 코를 골기 시작하는 현수.
힘이 풀린 현수의 손도 정남의 발에 닿게 되고 결국 세 명 다 몸을 맞대고 자게 되는 그림.
오토 블라인드 젖혀지며 들어오는 밝은 햇살. 세상모르고 자는 삼대.

99. 라디오 방송국 – 오후

초췌한 모습의 PD. 그에게 다가오는 AD.

AD 시말서 다 쓰셨어요?
PD (울먹) 나 국장한테 종아리 맞았다. 씨발. 서른다섯에.... 바지 올리고....
AD 저기 PD님. 그 제인 수소문 한 거 찾았는데요.
PD (휙 노려보며) 이제 필요 없거든?!!
AD 아니 그게 아니고.... 제인이 말입니다. 그 사연 보낸 정남이랑 같은 인물이랍니다.
PD ...왜?! 어떻게?!!
AD 그리고 더 놀란 건 I.P 추적해 봤는데..... 주소랑 집 주인이 말입니다.

종이를 건네는 AD. 주소를 보고 놀라는 PD.

PD 일단 이거, 절대 비밀로 해. 알았지?
이거 혹시 봉 기자라도 냄새 맡아서 신문 나가면 진짜.....

100. Montage

전국 방방곡곡 거리마다 가판에 채워지는 스포츠 신문,
일면에 자리 잡고 있는 현수, 정남, 기동에 관한 사진들과 기사.
인터넷에서도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하는 현수의 검색어.
곳곳에서 이들의 기사를 읽는 사람들. 양수도 자신의 병원에서 걱정스러운 듯 기사를 읽는다.

101. 기자회견장 뒤 – 오후

기자회견 장 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현수.
그 옆에는 PD와 몇 명의 스텝들. 양수까지 와 있다.

PD 선배, 괜찮겠어요?
현수 뭘?
양수 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니가 뭐 되게 나쁜 짓 한 거 아니니까...
현수 누가 뭐래?

의외로 담담한 현수의 모습. 진행 요원이 부르자 자리를 뜬다.
걱정스레 쳐다보는 PD와 양수. 그러다 양수를 쳐다보는 PD.

PD 저기 혹시 옛날에...
양수 (대뜸) 네! 접니다. 드럼 치고....
PD(아니 그게 아니고).....
양수(아닌가?)....대학가요제.....
PD 아니... 군대.... 아~ 잘못 봤네요.

어색한 두 사람.

102. 기자회견장

연속으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앞으로 나가는 현수, 담담하게 앉는다.
그러나 막상 앞을 보면 생각보다 적은 수의 취재진들.
흔히 유명 연예인 기자회견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기자들의 반응도 뜨뜻 미지근...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준비 해온 내용을 발표하려는 현수.
약간 긴장. 잔뜩 감정을 잡고 글을 읽기 시작한다.

현수 어릴 적..... 진정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못 있는 현수, 물을 마신다.
이 때, 촬영하던 기자들 사이로 누군가 컷속말 하면 웅성거리며 하나 둘 씩 빠져나가는 기자들.
정말 예상외의 반응에 당황하는 현수, 어느덧 거의 빠져나간 기자들.
몇 개의 카메라만 자리를 지킨다. 썰렁한 실내.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는 진행자. 의아해 하는 현수에게 귀뜸 해준다.

진행자 (난감) 저.... 박정민이 비디오 사건 기자회견 한다고.....

김빠지는 표정의 현수. 빨리 하라는 듯 재촉하는 기자.

기자 얼른 하세요. 얼른.
현수

103. 현수의 집 – 저녁

거실에 둘러 앉아 ‘한밤의 TV 연예’ 류의 프로를 보고 있는 세 사람.
최다 편집한 화면에 짧게도 끝나는 현수의 기자 회견.
그 대신 박정민에 관한 취재는 대대적으로 다룬다.

리포터 한편 기자회견장에서 박정민씨는 자신의 사건을 폭로한 모 일간지 기자 봉 모씨를 대면하자 그 자리에서 폭행하는 사건까지 저질렀는데요,
폭행당한 봉 모 기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금가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고,
현재 서울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방송화면]

기자회견장에서 봉 기자를 발견한 영화배우 박정민이 그대로 달려들어 가혹한 폭행을 하고,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봉 기자는 초라한 몰골로 실려 가는 등의 화면이다.
자신의 소식이 제대로 밀렸음에 좀 민망한 표정의 현수.
힐끗 쳐다보는 정남의 시선에 짜증을 느낀다. 이 때 양수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양수 (빈정대며) 거 봐라. 너 별로 인기 없다고....

신경질적으로 끊어 버리는 현수.

104. Montage

101씬과 같은 장소와 화면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 방방곡곡 거리마다 가판마다 박정민의 기사로 바뀌 채워지는 스포츠 신문. 현수의 신문들은 폐기 처분되거나, 심지어 양수네 동물 병원에서는 개들의 화장실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박정민’, ‘박정민 폭행 동영상’, ‘봉 기자’, 심지어 ‘간장 계장’, ‘붕어 낚시’등의 별것 아닌 것들에게 밀려 순위 밖으로 빠지는 ‘남현수’란 검색어.

105. 통기타 라이브 카페 – 저녁

조모와 마주 앉아 있는 현수.
현수는 잔뜩 심각한 반면 조모는 담담해 보인다.
고개 폭 속이고 입을 여는 현수.

현수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조모

현수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해도,
어떻게 나를 그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냐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조모 기동이 할아버님.

현수(젠장).....

조모 그건 결혼했거나 연애하는 사이에서 하는 얘기죠.

현수

조모 아직 연애는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과속하시네.

힐끔 조모를 쳐다보는 현수.

조모는 현수를 이해한다는 듯, 아니 이미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듯 미소 짓고 있다.

조모 할아버지도 연애할 권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지도 못 한 그녀의 반응에 얼떨떨한 현수.

조모 (장난스레) 그런데 연예인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서야.
아저씨로 컨셉을 바꾸던지 해야지.

106. 라디오 방송국 – 오후

국장 (들뜬) 그러니까 이걸 컨셉으로 잡잔 말이지. ‘아저씨’
김창완이나 배철수 아저씨 같은.... 지금 청취율 괜찮잖아? 봐 봐.
요새 니(현수)가 ‘책임감’, ‘책임지는 남자’ 뭐 이런 이미지가 생겼거든? 참 나~.

흔자 들떠서 얘기하고 있는 국장. 그저 멍하니 경청하는 현수와 스텝들.

107. 현수의 집 – 저녁

‘끌까지 책임 지겠습니다’란 카피와 함께 TV 광고에 나오는 현수의 모습.
애탋하게 아이를 안고 ‘믿음’, ‘의무’ 등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토록 원했던 은행 광고.
상당히 가식적이다. 이런 모습을 집에서 둘러 앉아 보는 세 사람.
마냥 흐뭇한 현수. 웃기지도 않다는 표정의 정남. 별 생각 없는 기동.
가식적이라는 듯 빤히 자신을 쳐다보는 정남과 눈이 마주치면 짜증내는 현수.

현수 (짜증) 뭘?! 왜?!!
정남 (짜증) 아 누가 뭐래요?!
현수 (짜증) 눈빛이 그렇잖아! 눈빛이!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이들 뒤로 쌩뚱 맞게 큰 그랜드 피아노가 놓아져 있다.

108. 어린이 집 – 저녁

가족 장기 자랑이 한창인 어린이 집.
연말의 따뜻한 느낌, 어설프지만 각 가정들이 장기 자랑에 여념이 없다.

[Cut To – 무대 뒤 / 저녁]

실루엣으로 보이는 삼대,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듯 좀 초조해 보인다.
양수의 모습도 보이고....

현수 (투덜) 옷은 그냥 각자 입자니깐 이게 뭐야.
정남 아~ 거 참. 아 그냥 이렇게 된 거 해요. 그냥.
양수 (투덜) 나는 여기 왜 긴 거야. 가족도 아닌데.
현수 (짜증) 혼자 사는 놈이 연말에 끼워 주면 고맙다고나 하지....
양수 (버럭) 지는 언제부터 혼자 안 살았다고?
 (정남에게) 니 아빠 아직 10억 안 줬냐?
정남 그러게요? 끝까지 버티시네?
현수 (딴청) 나 죽으면 다 니꺼야..... 60년만 기다려.
 (생각해 보니까) 1억 깍아준다매?!

[Cut To – 무대 / 저녁]

마침내 앞의 무대가 끝나고 가려지는 커튼.

사회자 네.... 김 무궁화 어린이 가족의 '즐거운 우리 집'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황기동 어린이..... (수정) 아니 남기동 어린이 가족의 무대..
 피아노에 남기동 어린이..... 보컬에 엄마 남제인씨.....
 기타에는..... 할아버지.... 남현수(난감) 옹? 씨?
 (어쨌거나) 작은 별 가족 이후 혼존하는 국내 유일의 가족 밴드.
 소개 합니다. 과. 속. 삼. 대!!!!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젖혀지는 커튼. 복장을 통일한 현수 일가가 등장한다.
화려한 연주와 함께 시작되는 타이밍....이지만 멈칫하는 이들.
일제히 드럼을 쳐다보면, 빠진 모습의 양수.
'흠흠' 하며 사회자에게 다가가 귓속말 하고 페이퍼를 수정해 주는 현수.
미안하다며 다시 마이크를 드는 사회자.
참 어색함과 동시에 어수선한 상황.

사회자 드럼엔 대학가요제 출신 객원 드러머. 미혼 남, 임. 양. 수!!!

터질 듯한, 드럼 솔로를 작렬하는 양수.

과도한 드럼 소리에 어린이며 학부형들은 부담스런 표정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난 양수. 현수의 눈치를 받으며 제대로 연주 시작.

Aly and A.J – ‘Walking on sunshine’

어린이 집에서 보여주기엔 아까울 정도로 프로의 무대.

맨 앞에 앉아 있는 조모를 향해 화려한 무대 매너를 보이는 현수.

현수와 비슷한 모양새로 무궁화에게 눈길 날리는 기동. 정남의 무대 매너는 말할 것도 없다.

간주 중에는 기동의 피아노와 현수의 기타가 주거니 받거니 즉흥 연주를 하며 관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다시 정남과 보컬로 즉흥 무대를 만드는 능숙한 현수.

각자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며 관객들을 사로잡는 삼대.

#109. Epilogue 사진관 – 오후

[INSERT – 함박눈이 내리는 거리 풍경]

사진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는 현수, 정남을 부른다.

현수 어이. 남제인.... (대답 없자) 남정남이!!

‘짜증은?’하며 거울 안으로 Frame in 하는 정남. 기동을 부른다.

정남 기동아! 남기동!

쪼르르 달려와 거울로 Frame in 하는 기동. 거울 안이 분주하다.

좁다며 짜증내는 현수. 또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사진사 (O.S) 준비 되셨으면 오시죠?

‘네~’ 하며 가는 삼대, 사진 찍는 자리에 선 삼대.

사진사 (O.S) 네~. 그럼.... 일단 오빠 분이 앉으시고..

현수 제가 얘 아빤데요?

사진사 (O.S) 네? 아.... 네.... 그럼 일단 아버님...이 앉으시고.. (앉는 현수)

저기 우리 조카 어린이는.....

정남 얘가 제 아들인데요.

사진사 (O.S) 네?.... 예.... 그럼.. 저기 우리 저... 따님? 따님은 옆에 서 시고...(서는 정남)
그럼 할아버지 되시나...? 네 저 할아버지 무릎에 우리 손자 어린이가 앉으시고,
(앉는 기동) 그럼 우리 동생...따님이 아버님 어깨에 살짝 손을.... 그렇죠.
자 그럼 찍겠습니다. 고개 좀 이렇게.....(다함께 고개 갸웃) 그렇죠.
허허... 삼대가 사진을 찍으러 오신 거구만. 네. 좀 웃으시고.. 자연스럽게..
찍습니다.. 하나... 눈 감지 마시고... 둘.... 좋아요... 셋!!

플래시 터지며 삼대의 사진. 셋 다 눈을 감고 있다.
- 자막 올라가며 105씬의 연주 장면과 음악 이어진다.

[The End]

본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토일렛 픽처스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사회자 드럼엔 대학가요제 출신 객원 드러머. 미혼 남, 임. 양. 수!!!

터질 듯한, 드럼 솔로를 작렬하는 양수.
과도한 드럼 소리에 어린이며 학부형들은 부담스런 표정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난 양수. 현수의 눈치를 받으며 제대로 연주 시작.

Aly and A.J - 'Walking on sunshine'

어린이 집에서 보여주기엔 아까울 정도로 프로의 무대.
맨 앞에 앉아 있는 조모를 향해 화려한 무대 매너를 보이는 현수.
현수와 비슷한 모양새로 무궁화에게 눈길 날리는 기동. 정남의 무대 매너는 말할 것도 없다.

간주 중에는 기동의 피아노와 현수의 기타가 주거니 받거니 즉흥 연주를 하며 관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다시 정남과 보컬로 즉흥 무대를 만드는 능숙한 현수.
각자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며 관객들을 사로잡는 삼대.

#109. Epilogue 사진관 – 오후

[INSERT – 함박눈이 내리는 거리 풍경]

사진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는 현수, 정남을 부른다.

현수 어이. 남제인.... (대답 없자) 남정남이!!

'짜증은?'하며 거울 안으로 Frame in 하는 정남. 기동을 부른다.

정남 기동아! 남기동!

쪼르르 달려와 거울로 Frame in 하는 기동. 거울 안이 분주하다.
좁다며 짜증내는 현수. 또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사진사 (O.S) 준비 되셨으면 오시죠?

'네~' 하며 가는 삼대, 사진 찍는 자리에 선 삼대.

사진사 (O.S) 네~. 그럼.... 일단 오빠 분이 앉으시고..

현수 제가 애 아빤데요?

사진사 (O.S) 네? 아.... 네.... 그럼 일단 아버님...이 앉으시고.. (앉는 현수)
저기 우리 조카 어린이는.....

정남 얘가 제 아들인데요.

사진사 (O.S) 네?.... 예.... 그럼.. 저기 우리 저... 따님? 따님은 옆에 서 시고...(서는 정남)
그럼 할아버지 되시나...? 네 저 할아버지 무릎에 우리 손자 어린이가 앉으시고,
(앉는 기동) 그럼 우리 동생...따님이 아버님 어깨에 살짝 손을.... 그렇죠.
자 그럼 찍겠습니다. 고개 좀 이렇게.....(다함께 고개갸웃) 그렇죠.
허허... 삼대가 사진을 찍으러 오신 거구만. 네. 좀 웃으시고.. 자연스럽게..
찍습니다.. 하나... 눈 감지 마시고... 둘.... 좋아요... 셋!!

플래시 터지며 삼대의 사진. 셋 다 눈을 감고 있다.
- 자막 올라가며 108센의 연주 장면과 음악 이어진다.

[The End]

본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토일렛 픽처스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